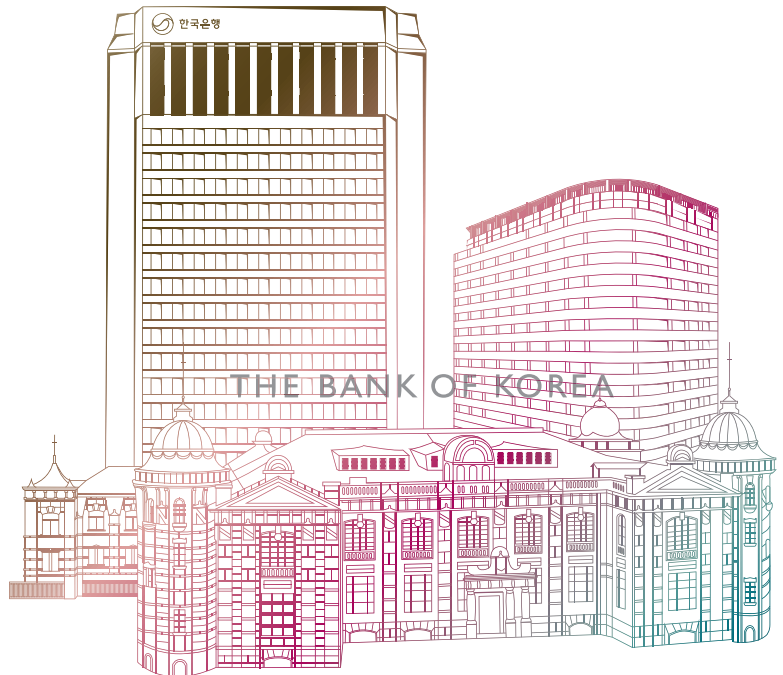


경제전망보고서

2017. 4



경제전망보고서

2017. 4



차례

〈 요약 〉

| | |
|-----------------------------------|----|
| I.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 1 |
| 1. 해외경제 | 1 |
| 2. 국내경제 | 4 |
| II.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 | 8 |
| 1. 국외 여건 | 8 |
| 2. 국내 여건 | 15 |
| 3. 요약 | 18 |
| III. 거시경제 전망 | 19 |
| 1. 경제성장 | 19 |
| 2. 고용 | 30 |
| 3. 물가 | 33 |
| 4. 경상수지 | 36 |
| 5. 종합평가 | 38 |
| IV. 주요 현안점검 | 42 |
| 1. 최근 세계교역 여건 평가 및 전망 | 42 |
| 2. 사드관련 한·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 | 47 |
| 3. 최근 IT부문 투자 확대 배경 및 향후 전망 | 52 |

요 약

① 경제성장률은 2017년중 2.6%, 2018년에는 2.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금년중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여건의 개선, IT부문 호조 등으로 상당폭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

▪ 상품수출은 세계수요의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

○ 2018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② 취업자수는 2017년중 28만명 내외, 2018년에는 30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 금년중 취업자수는 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 고용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중국의 한국관광 규제 등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

○ 2018년중에는 점진적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③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및 2018년중 각각 1.9%로 전망

- 기간별로 보면 금년중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상승의 영향 축소,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으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중에는 금년 수준의 오름세를 보일 전망

④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7년중 750억달러, 2018년중 730억달러로 전망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6년 7% 내외에서 2017년 5%대 중반, 2018년에는 5%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경제 전망

(전년동기대비, %)

| | 2016 | | 2017 ^{e)} | | 2018 ^{e)} | |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 GDP | 2.8 | 2.6 | 2.7 | 2.6 | 2.9 | |
| 민간소비 | 2.5 | 1.9 | 2.0 | 2.0 | 2.3 | |
| 설비투자 | -2.3 | 9.5 | 3.3 | 6.3 | 3.4 |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3 | 2.5 | 2.9 | 2.7 | 3.2 | |
| 건설투자 | 10.7 | 7.3 | 2.2 | 4.5 | -0.1 | |
| 상품수출 | 2.2 | 4.0 | 2.6 | 3.3 | 3.5 | |
| 상품수입 | 3.6 | 6.2 | 1.8 | 4.0 | 3.4 | |
| 취업자수 증감 ¹⁾ | 30 | 28 | 29 | 28 | 30 | |
| 실업률 | 3.7 | 4.0 | 3.5 | 3.8 | 3.7 | |
| 고용률 | 60.4 | 60.1 | 61.1 | 60.6 | 60.8 | |
| 소비자물가 | 1.0 | 2.0 | 1.8 | 1.9 | 1.9 | |
| 식료품·에너지 제외 | 1.9 | 1.6 | 1.7 | 1.7 | 1.9 | |
| 농산물·석유류 제외 | 1.6 | 1.4 | 1.6 | 1.5 | 1.9 | |
| 경상수지 ²⁾ | 987 | 370 | 380 | 750 | 730 | |
| 상품수지 ²⁾ | 1,204 | 560 | 510 | 1,070 | 1,010 | |
| 서비스·본원·이전소득 ²⁾ | -218 | -190 | -130 | -320 | -280 | |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만명 기준

2) 억달러 기준

I.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1. 해외경제

(1) 주요국 경제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

-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완만한 개선흐름을 유지
- 신흥국은 중국과 아세안이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

선진국 경제지표

(전기대비, %)

| | 16.3/4 | 4/4 | 17.1월 | 2월 |
|----------------------|--------|------|-------|---------------|
| ▪ 미국 | | | | |
| 소매 판매 | 0.9 | 1.7 | 0.6 | 0.1 |
| 취업지수증감 ²⁾ | 71.6 | 44.3 | 21.6 | 21.9 [9.8] |
| ▪ 유로지역 | | | | |
| 소매 판매 | 0.3 | 0.9 | 0.1 | 0.7 |
| 실업률 | 9.9 | 9.7 | 9.6 | 9.5 |
| ▪ 일본 | | | | |
| 소매 판매 ³⁾ | 0.5 | 1.5 | 0.2 | 0.2 |
| 실업률 | 3.0 | 3.1 | 3.0 | 2.8 |

주: 1) 비농업부문(만명) 2) []내는 3월중
3) 명목 기준

자료: Census, Eurostat, ECB, 경제산업성

신흥국 GDP성장률¹⁾

(전년동기대비, %)

| | 16.1/4 | 2/4 | 3/4 | 4/4 |
|-------------------|--------|------|------|------|
| 중 국 | 6.7 | 6.7 | 6.7 | 6.8 |
| 인 도 | 8.6 | 7.2 | 7.4 | 7.0 |
| 브라질 | -5.4 | -3.6 | -2.9 | -2.5 |
| 러시아 | -0.4 | -0.5 | -0.4 | 0.3 |
| 아세안 ⁵⁾ | 4.8 | 5.0 | 5.0 | 4.9 |
| 신흥국 ¹⁾ | 5.0 | 5.1 | 5.2 |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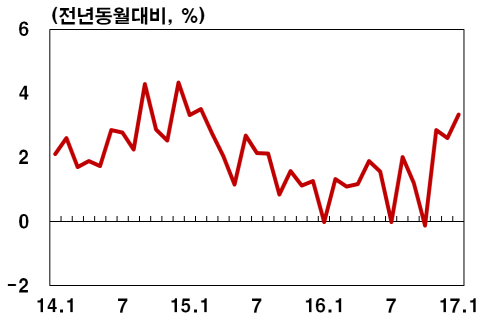
주: 1)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세안
5개국의 GDP 가중평균

자료: 각국 통계청

□ 세계교역은 회복세가 점차 확대

- 1월중 세계교역량(상품기준) 증가율(3.4%, 전년동월대비)은 2015.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대다수 신흥국에서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출도 회복 추세

세계교역량¹⁾



주: 1) 상품, 물량기준
자료: CPB

주요국의 수출

| | (%) | | | | |
|--------------------|--------|------|-------|------|------|
| | 16.3/4 | 4/4 | 17.1월 | 2월 | 3월 |
| 미 국 ¹⁾ | 4.0 | -0.9 | 1.0 | 0.3 | .. |
| 유로지역 ¹⁾ | 0.7 | 3.2 | -0.6 | .. | .. |
| 일 본 ¹⁾ | -0.2 | 6.3 | 1.1 | 6.1 | .. |
| 중 국 ²⁾ | -6.9 | -5.2 | 7.9 | -1.3 | .. |
| 인 도 ²⁾ | -1.0 | 6.0 | 4.3 | 17.5 | .. |
| 아세안 ²⁾ | 0.7 | 7.1 | 11.8 | .. | .. |
| 브라질 ²⁾ | -2.1 | -1.6 | 32.7 | 16.0 | 25.6 |
| 러시아 ²⁾ | -10.0 | 1.8 | 46.6 | .. | .. |

주: 1) 전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자료: 각국 발표치

(2) 글로벌 상품시장

□ 국제유가는 셰일오일 증산* 등으로 3월 중순경 소폭 하락하였으나, 감산합의 연장 기대 확산** 등으로 50달러 초·중반대로 재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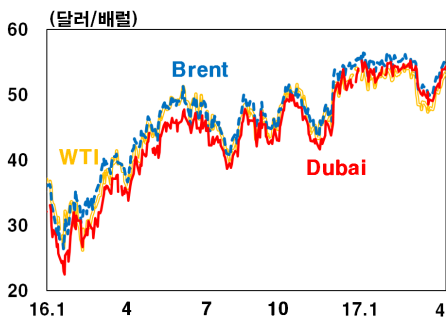
| | 16.12월 | 17.1월 | 2월 | 3월 | 4.3~7일 |
|------------------------------------|----------------|----------------|----------------|----------------|----------------|
| ▶ Dubai(달러/배럴, 기간평균) ¹⁾ | 51.8 (54.0) | 53.4 (53.0) | 54.2 (54.2) | 51.2 (51.0) | 52.4 (53.9) |

주: 1) ()내는 기말기준

* 미국 셰일오일 시추기수가 지난해 6월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가운데 셰일오일 생산량도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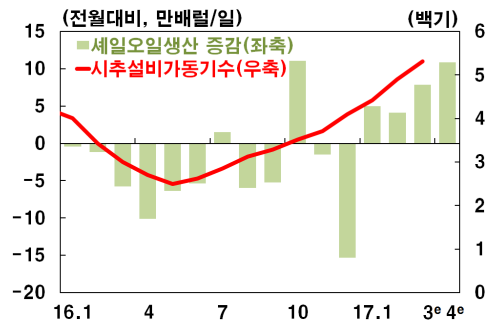
** 쿠웨이트,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지지 발언으로 OPEC 정기총회(5.25일)에서 감산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가 확대

국제유가



자료: Bloomberg

미국의 셰일오일 및 시추기수



자료: EIA, Baker Hug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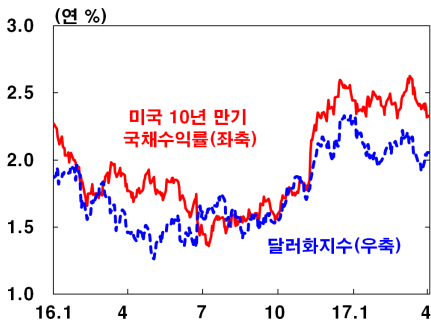
(3) 국제금융시장

- 미국 장기금리 및 달러화 가치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며 등락을 반복

* 감세안 및 인프라투자 계획안 입안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개혁법안 (AHCA) 도입 실패(3.24일) 등으로 정책실행에 대한 우려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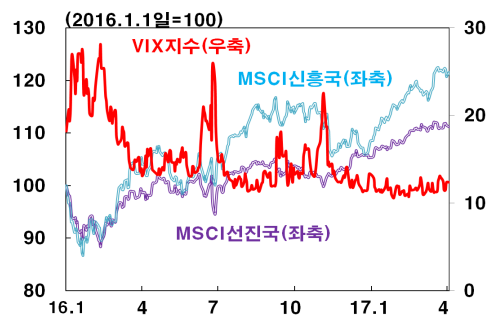
-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 모두 글로벌 경기회복세,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상승

미국 장기금리 및 달러화지수



자료: Bloomberg

글로벌 주가 및 VIX지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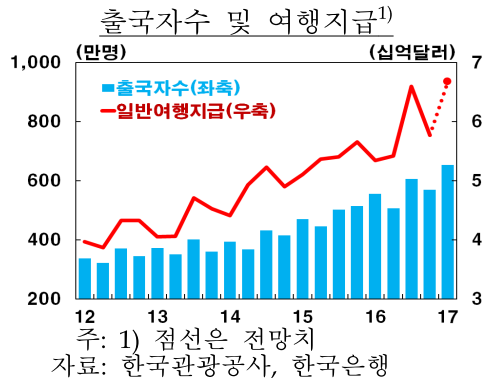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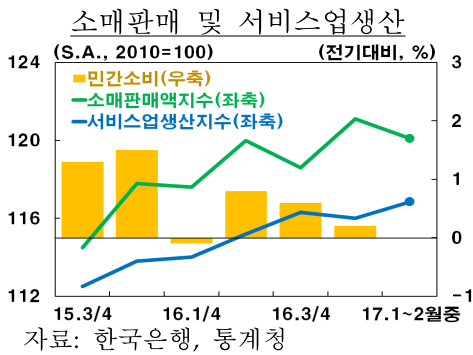
2. 국내경제

(1) 내수

□ 내수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민간소비는 1/4분기중 부진이 다소 완화

-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해외 및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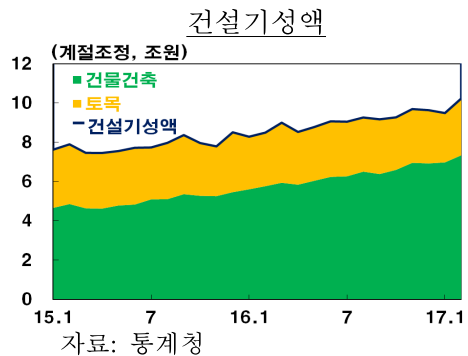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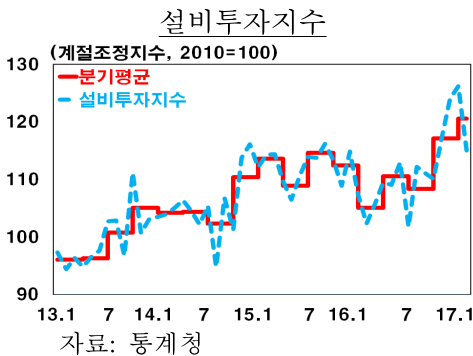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업종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증가를 견인

□ 건설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

- 건물건축이 지난해 하반기 분양물량 호조 등에 힘입어 건설하게 증가



(2)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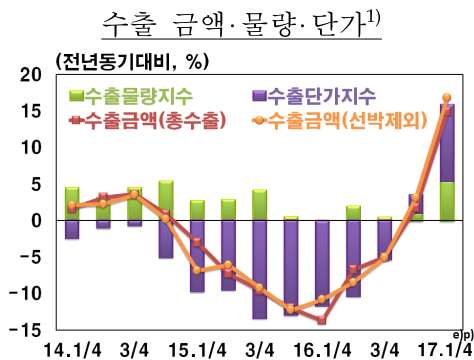
□ 수출입(통관기준)은 금년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가·물량 모두 개선 추세

○ 수출은 선박·휴대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품목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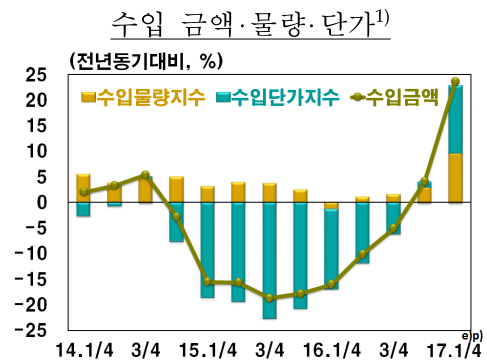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중국·ASEAN5 등 신흥국이 수출 증가를 주도

○ 수입은 자본재 증가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원자재가 큰 폭 증가

▪ 자본재는 반도체장비·정밀기기 등의 호조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소비재는 직접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주: 1) 수출금액지수를 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출
2) 17.3월 물량·단가지수는 추정치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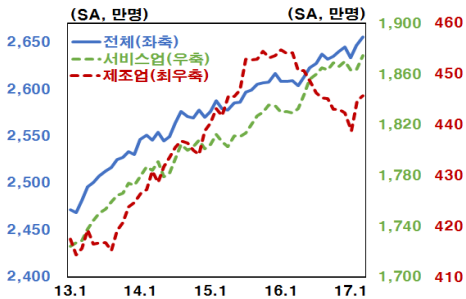
주: 1) 수입금액지수를 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출
2) 17.3월 물량·단가지수는 추정치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3) 고용

□ 최근 고용상황은 수출확대에 따른 제조업 생산 증대, 정부의 일자리사업 등으로 부진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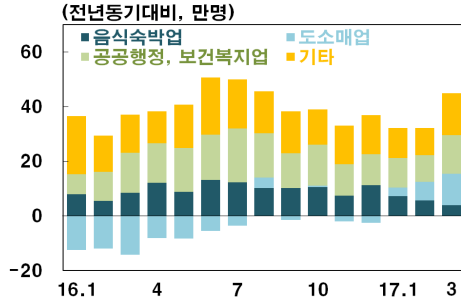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수가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수도 공공행정·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증가

업종별 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주요 서비스업종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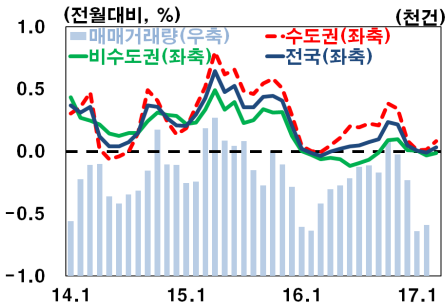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4) 부동산가격

□ 2017.1/4분기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3 대책으로 오른세가 크게 둔화된 이후 보합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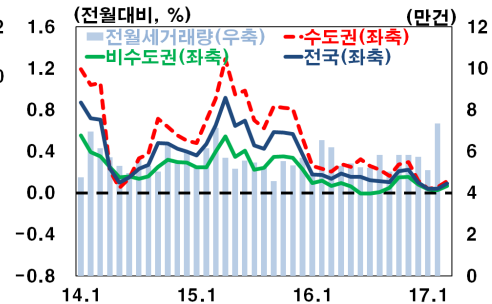
○ 아파트 전세가격도 공급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안정세를 유지

아파트매매가격 및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아파트전세가격 및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5) 물 가

□ 소비자물가는 올해 1/4분기중 2% 내외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
(16.4/4분기 1.5% → 17.1/4분기 2.1%*)

$$* \frac{16.4/4 \text{ 분기 대비 상승폭}}{+0.6\%p} \approx \frac{\text{농축수산물}}{-0.08\%p} + \frac{\text{석유류 (도시가스 포함)}}{+0.83\%p} + \frac{\text{전기}}{-0.15\%p}$$

▪ 이는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가격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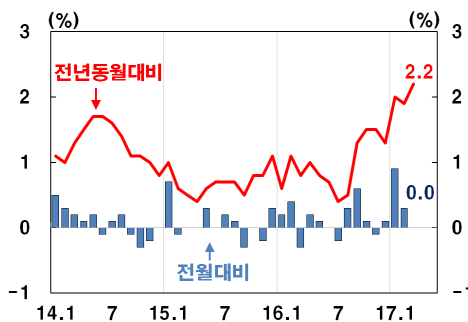
▶ 국제유가 (Dubai油, 달러, 평균)

| | | | | |
|----------|-----|-----|-----|----------|
| 2016.1/4 | 2/4 | 3/4 | 4/4 | 2017.1/4 |
| 31 | 43 | 43 | 48 | 53 |

▶ 도시가스요금은 올해 3월 인상(전월대비 +2.7%) 등으로 소비자물가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가 크게 축소(16.4/4분기 -0.3%p → 17.1/4분기 -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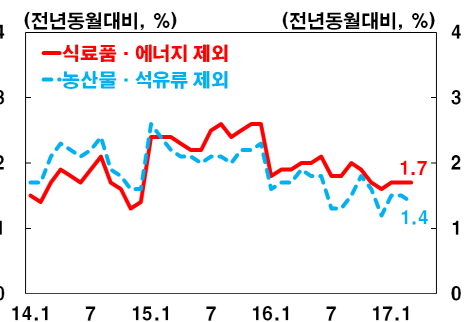
○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은 1%대 중후반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16.4/4분기 1.7% → 17.1/4분기 1.7%)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근원인플레이션



자료: 통계청

Ⅱ. 국내의 경제여건 전망

1. 국외 여건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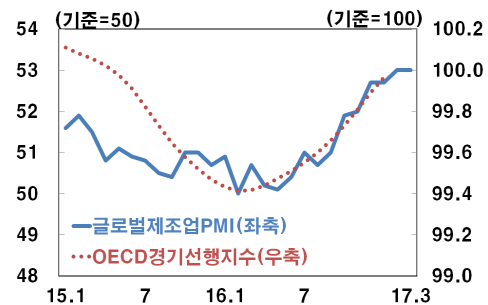
-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자원수출 신흥국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 OECD 경기선행지수 등 경기 선행지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 전망시점 | 2016 ^㉔ | 2017 ^㉔ | 2018 ^㉔ |
|----------------|-------|-------------------|-------------------|-------------------|
| IMF | 17.1월 | 3.1 | 3.4 | 3.6 |
| (선진국) | " | 1.6 | 1.9 | 2.0 |
| (신흥국) | " | 4.1 | 4.5 | 4.8 |
| OECD | 17.3월 | 3.0 | 3.3 | 3.6 |
| World Bank | 17.1월 | 3.0 | 3.5 | 3.7 |
| Global Insight | 17.3월 | 3.0 | 3.4 | 3.7 |
| 6개 IB 평균 | 17.3월 | 3.1 | 3.5 | 3.7 |

자료: 각 기관

글로벌 PMI 및 OECD 선행지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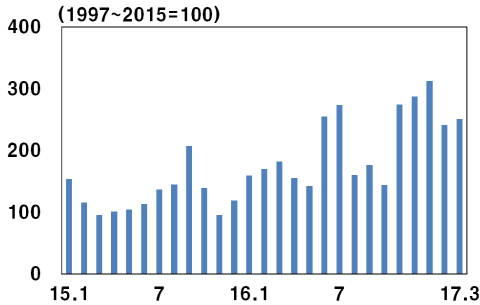
주: 1) OECD국가 및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 포함

자료: Bloomberg, OECD

-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연준의 정책금리인상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높은 불확실성이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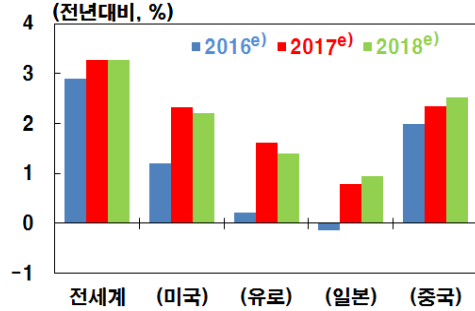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세계경기 개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¹⁾



주: 1) 전세계는 IMF WEO(2016.10월호), 각국은 6개 IB 전망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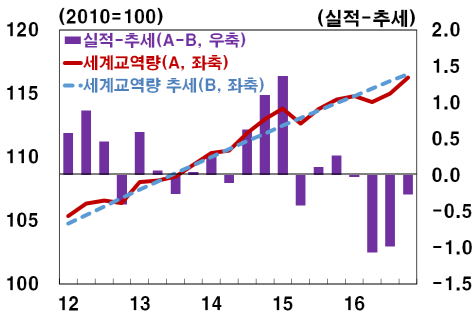
자료: IMF 등

(세계교역)

□ 세계교역은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로 선진국과 신흥국간 교역량이 늘어나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도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 다만 보호무역기조, 글로벌 생산분업 약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글로벌 교역 추세¹⁾



주: 1) HP필터를 이용하여 추출 (2000.1/4 ~ 16.4/4분기중)

자료: CPB

세계교역신장률 전망

| | | (%) | | | |
|--------------------------|--------|------|--------------------|--------------------|--------------------|
| | | 전망시점 | 2016 ^{e)} | 2017 ^{e)} | 2018 ^{e)} |
| IMF ¹⁾ | 17.1월 | | 1.9 | 3.8 | 4.1 |
| | (선진국) | " | 2.0 | 3.6 | 3.8 |
| | (신흥국) | " | 1.8 | 4.0 | 4.7 |
| OECD ¹⁾ | 16.11월 | | 1.9 | 2.9 | 3.2 |
| World Bank ¹⁾ | 17.1월 | | 2.5 | 3.6 | 4.0 |
| WTO ²⁾ | 16.9월 | | 1.7 | 1.8~3.1 | .. |

주: 1) 상품+서비스 기준

2) 상품 기준

자료: 각 기관

(미국)

□ 미국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심리 개선이 민간소비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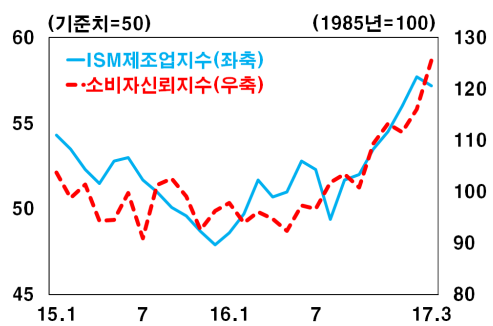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시행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은 성장세 확대 제약요인으로 잠재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 전망시점 | 2016 | 2017 ^{e)} | 2018 ^{e)} |
|------------------|-------|------|--------------------|--------------------|
| IMF | 17.1월 | 1.6 | 2.3 | 2.5 |
| OECD | 17.3월 | | 2.4 | 2.8 |
| World Bank | 17.1월 | | 2.2 | 2.1 |
| Global Insight | 17.3월 | | 2.3 | 2.6 |
| 80개IB 평균 | 17.3월 | | 2.2 | 2.4 |
| 연준 ¹⁾ | 17.3월 | | 2.0~ 2.2 | 1.8~ 2.3 |

주: 1) 4/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ISM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구매관리자협회, 컨퍼런스보드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완만한 개선세를 지속할 전망

-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소비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다만 주요국 선거(4~5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 브렉시트 협상 등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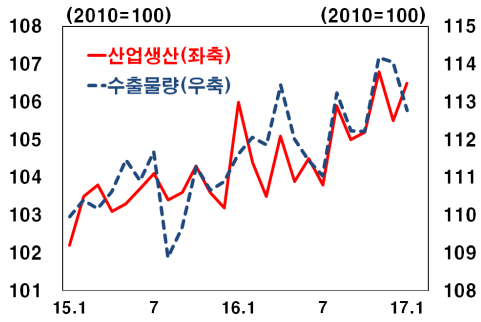
- 영국과 EU간 탈퇴 협상은 거액의 탈퇴 비용,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싼 회원국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가능성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 | 전망시점 | 2016 | 2017 ^{e)} | 2018 ^{e)} |
|----------------|-------|------|--------------------|--------------------|
| IMF | 17.1월 | 1.7 | 1.6 | 1.6 |
| OECD | 17.3월 | | 1.6 | 1.6 |
| World Bank | 17.1월 | | 1.5 | 1.4 |
| Global Insight | 17.3월 | | 1.6 | 1.6 |
| 55개 IB 평균 | 17.3월 | | 1.6 | 1.5 |
| ECB | 17.3월 | | 1.8 | 1.7 |
| EU집행위 | 17.2월 | | 1.6 | 1.8 |

자료: 각 기관

산업생산 및 수출물량



자료: Eurostat, CPB

(일 본)

□ 일본경제는 수출과 공공·민간투자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세계경제 회복 및 교역신장 등으로 수출과 생산의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전년동기대비, %) | 16.1/4 | 2/4 | 3/4 | 4/4 | 17.1~2 |
|-----------------------|--------|------|-------|------|--------|
| ▶ 수출증가율 ¹⁾ | -7.9 | -9.5 | -10.2 | -1.9 | 6.3 |
| ▶ 생산증가율 | -1.6 | -1.8 | 0.4 | 2.1 | 4.2 |

주: 1) 통관 수출금액

○ 대규모 경제대책이 실행*되는 가운데 기업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설비투자도 점차 증가할 전망

* 21세기형 인프라 투자, 구마모토 지진 피해복구 사업 등에 대해 금년 4월부터 본격 집행(28.1조엔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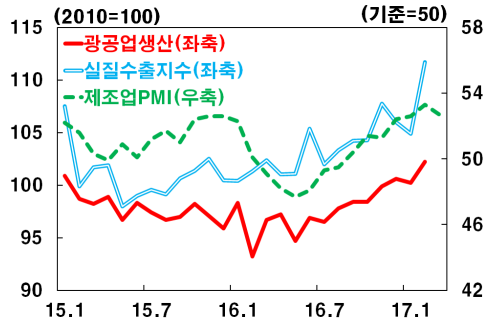
□ 다만 임금개선세가 부진함에 따라 민간소비 회복은 지연될 전망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 | 전망시점 | 2016 | 2017 ^{e)} | 2018 ^{e)} |
|------------------------|-------|------|--------------------|--------------------|
| IMF | 17.1월 | 1.0 | 0.8 | 0.5 |
| OECD | 17.3월 | | 1.2 | 0.8 |
| World Bank | 17.1월 | | 0.9 | 0.8 |
| Global Insight | 17.3월 | | 1.1 | 0.9 |
| 51개 IB 평균 | 17.3월 | | 1.1 | 1.0 |
| 일본경제연구센터 ¹⁾ | 17.3월 | | 1.3 | 1.2 |

주: 1) 40개 일본 민간기관 평균

광공업생산, 수출 및 제조업 PMI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Markit

(중국)

□ 중국경제는 대내외 수요개선 등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중국정부의 금년 성장률 목표치는 6.5% 내외(전인대, 3.5일)

○ SOC 및 부동산 중심의 견조한 투자 증가세, 수출 회복세와 함께 산업생산도 개선

□ 부동산 과열 억제 및 기업 부채 축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위축, 금융리스크* 등은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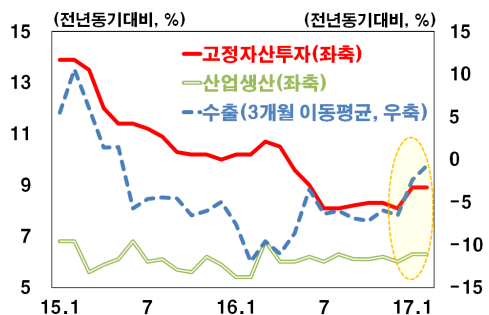
* 통화정책 기조변화 등에 따른 단기시장금리 상승과정에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 전망시점 | 2016 | 2017 ^{e)} | 2018 ^{e)} |
|----------------|-------|------|--------------------|--------------------|
| IMF | 17.1월 | 6.7 | 6.5 | 6.0 |
| OECD | 17.3월 | | 6.5 | 6.3 |
| World Bank | 17.1월 | | 6.5 | 6.3 |
| Global Insight | 17.3월 | | 6.5 | 6.2 |
| 10개IB 평균 | 17.3월 | | 6.6 | 6.3 |
| 사회과학원 | 17.3월 | | 6.6 | .. |

자료: 각 기관

고정자산투자·수출·산업생산



자료: CEIC

(신흥국)

□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은 수출 및 민간소비 호조,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소매판매증가율) ¹⁾ , % | 인도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태국 | 베트남 |
|-----------------------------|------|-------|-------|-----|------|
| ▶ 2016.3/4 | 13.9 | 9.3 | -0.9 | 4.2 | 8.7 |
| ▶ 2016.4/4 | -3.4 | 9.5 | 6.8 | 2.7 | 7.9 |
| ▶ 2017.1/4 ²⁾ | -1.4 | 6.3 | 10.7 | 3.1 | 10.6 |

주: 1) 전년동기대비, 인도 자동차판매, 인도네시아·베트남 소매판매, 말레이시아 제조업판매, 태국 민간소비지수

2) 인도·인도네시아·태국 1~2월, 말레이시아 1월, 베트남 1~3월

자료: CEIC, 각국 통계청, 중앙은행

- 인도의 경우 자동차판매 부진 완화 등 지난해 11월 화폐개혁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

○ 브라질 및 러시아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전망

- 러시아는 산업생산 호조 등으로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은 경제개혁 지체 등의 하방리스크가 잔존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

| | 전망시점 | 인도 ¹⁾ | | | 브라질 | | | 러시아 | | | 아세안 5개국 ²⁾ | | |
|----------------|-------|------------------|------------------|------------------|------|------------------|------------------|------|------------------|------------------|-----------------------|------------------|------------------|
| | | 16 | 17 ^{e)} | 18 ^{e)} | 16 | 17 ^{e)} | 18 ^{e)} | 16 | 17 ^{e)} | 18 ^{e)} | 16 | 17 ^{e)} | 18 ^{e)} |
| IMF | 17.1월 | | 7.2 | 7.7 | | 0.2 | 1.5 | | 1.1 | 1.2 | | 4.9 | 5.2 |
| OECD | 17.3월 | | 7.3 | 7.7 | | 0.0 | 1.5 | | 0.8 | 1.0 | | - | - |
| World Bank | 17.1월 | 6.8 | 7.6 | 7.8 | -3.6 | 0.5 | 1.8 | -0.2 | 1.5 | 1.7 | 4.9 | 5.1 | 5.2 |
| Global Insight | 17.3월 | | 7.2 | 7.4 | | 0.3 | 1.8 | | 1.0 | 1.7 | | 4.8 | 4.9 |
| 5개 IB 평균 | 17.3월 | | 7.4 | 7.8 | | 0.4 | 2.5 | | 1.7 | 2.0 | | 5.1 | 5.2 |

주: 1) 회계년도 기준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2) 글로벌 상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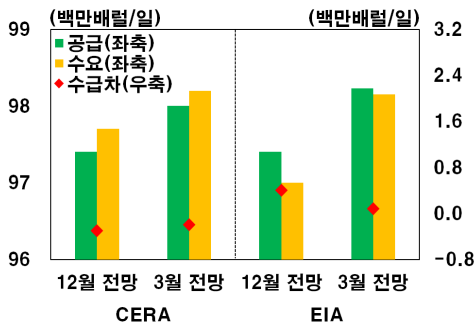
□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등 상승 요인과 셰일오일 증산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50달러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전망

- EIA와 CERA는 금년중 원유 수요량과 공급량 전망치를 모두 상향조정

- 감산합의 연장 및 이행 여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달러화 추이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이란 대선 결과(5월)에 따른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 고조 가능성, 리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

2017년 원유 수급여건¹⁾ 전망



주: 1) 공급 - 수요
자료: CERA, EIA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

| | 2017 ^{e)} | | | 2018 ^{e)} |
|-----------------|--------------------|----------------|----------------|--------------------|
| | 상반 | 하반 | 연간 | |
| CERA (3.17일) | 57.8 [56.6] | 57.8 [55.8] | 57.8 [56.2] | 57.3 [55.3] |
| OEF (3.24일) | 53.5 | 50.5 | 52.0 | 52.0 |
| EIA (3.7일) | 54.2 | 55.0 | 54.6 | 57.2 |

주: 1) Brent유 기준, ()내는 전망 일자
[]내는 Dubai유 기준
자료: CERA, OEF, EIA

2. 국내 여건

(1) 재정지출

- 금년중 재정지출은 2.2% 증가하여 지난해(4.4%)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
- 1/4분기중 재정집행률(주요사업비 기준)은 31.7%로 전년동기(33.0%)를 소폭 하회
 - 다만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는 58.0%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
- 2018년 재정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관리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및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 지출을 확대할 계획(기획재정부, 3.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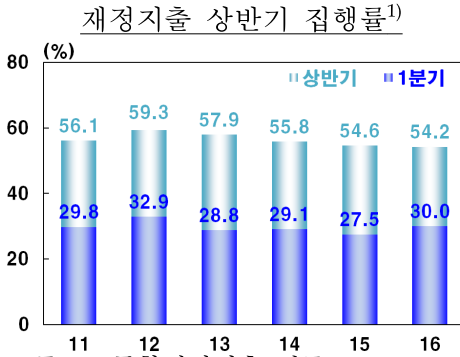
재정지출¹⁾ 전망²⁾

| | 2016 | 2017 ^{e)} | | | 2018 ^{e)} |
|---------|----------------|--------------------|-----------------|----------------|--------------------|
| | | 상반 | 하반 | 연간 | |
| ▪ 재정지출 | 354.4 (4.4) | 207.4 (4.1) | 154.7 (-0.2) | 362.1 (2.2) | 374.8 (3.5) |
| - 경상지출 | 310.0 | 184.0 | 138.3 | 322.3 | 335.7 |
| - 자본지출 | 32.6 | 20.4 | 13.9 | 34.2 | 33.8 |
| - 순 용 자 | 11.7 | 3.1 | 2.5 | 5.5 | 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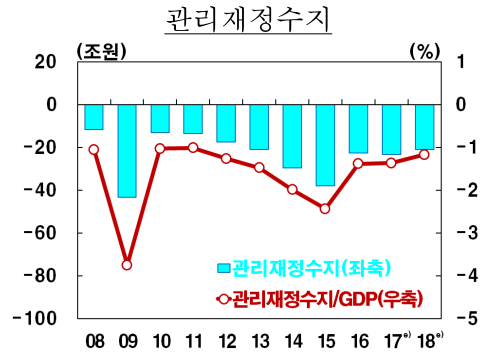
주: 1) 통합재정지출 기준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17~18년중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적자는 점차 개선될 전망



주: 1) 통합재정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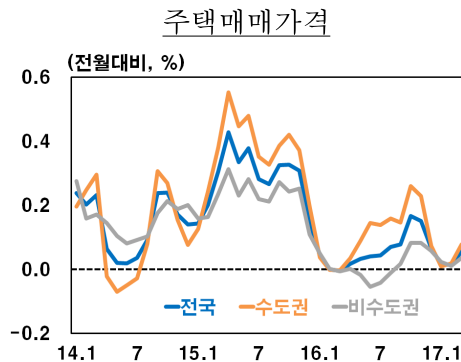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사국 추정

(2) 주택가격

□ 2017년 주택매매가격은 공급물량 확대, 금리 상승, 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 다만, 금년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조치의 종료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확대는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18년에도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매매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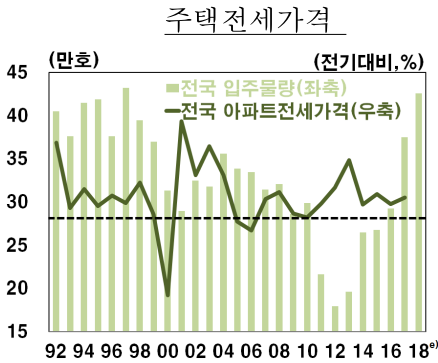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정부의 부동산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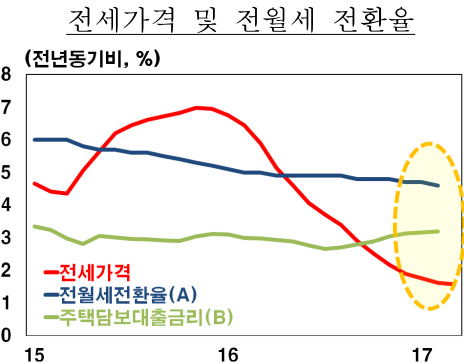
| 연도 | 내용 |
|-----|--------------------------------------|
| 16년 | · 수도권 여신심사 강화(2월) |
| | · 지방 여신심사 강화(5월) |
| | · 중도금대출보증 강화(7월) |
| | · 전매제한기간 연장(1년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11월) |
| | ·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11월) |
| 17년 | · 집단대출 여신심사 강화(11월) |
| | ·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3월) |
| | · 고분양가지역 보증규제 강화(3월) |

□ 2017년 주택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월세 수익률(전월세 전환율)과 금리 간 격차 축소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 약화로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 2018년에도 입주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



자료: 한국감정원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3. 요약

- 2017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3.4%로 전제
 - 2018년은 3.5% 성장
- 세계교역 신장률은 3.1%로 전제
 - 2018년은 3.3% 증가
-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는 배럴당 53달러로 전제
 - 2018년은 53달러 수준

전망 전제치

| | 2016 | 2017 ^{e)} | | | 2018 ^{e)} |
|--------------------------------|------|--------------------|-----|-----|--------------------|
| | | 상반 | 하반 | 연간 | |
| ▪ 세계경제 성장률(%) ¹⁾ | 3.1 | 3.4 | 3.5 | 3.4 | 3.5 |
| 미 국 | 1.6 | 2.3 | 2.1 | 2.2 | 2.3 |
| 유 로 | 1.7 | 1.7 | 1.7 | 1.7 | 1.6 |
| 일 본 | 1.0 | 1.3 | 1.2 | 1.2 | 1.0 |
| 중 국 | 6.7 | 6.6 | 6.5 | 6.5 | 6.2 |
| ▪ 세계교역 신장률(%) ¹⁾ | 2.2 | 3.0 | 3.2 | 3.1 | 3.3 |
| ▪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²⁾ | 41 | 54 | 51 | 53 | 53 |
| ▪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 ¹⁾ | -1.9 | - | - | 4.5 | 0.5 |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원유도입비중: 중동산 80%, 여타 20%, 기간 평균, CIF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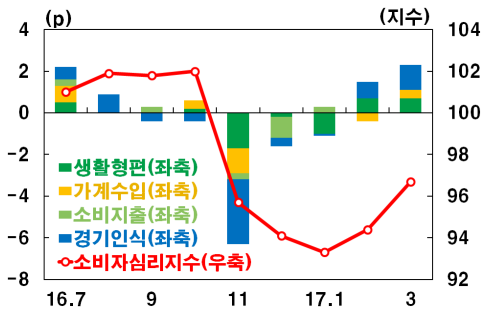
Ⅲ. 거시경제 전망

1. 경제성장

(1)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가계의 경기인식이 개선되면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
 -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6월말 종료 예정)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도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

소비심리 및 구성항목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주요 소비활성화 대책

- 노후 경유차 말소 후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 매월 1회 금요일 조기 퇴근 유도
-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
-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5월중 봄여행주간 확대 실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2.23)

- 다만 가계소득 개선 미흡,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 구조적 소비 제약 요인은 상존
 -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물가오름세 확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 개선이 제약

-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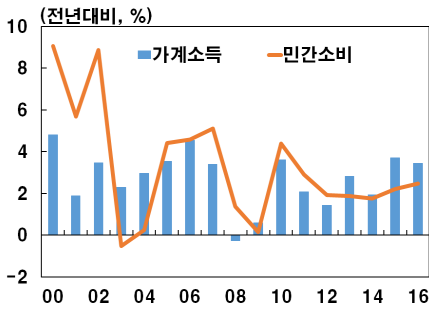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1.6%(2016년말 기준)

- 지난해부터 비은행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 대출금리 상승시 저소득·저신용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 2015년 8.3% → 2016년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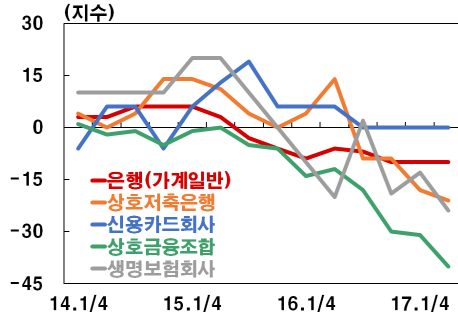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취약가계의 유동성 사정도 제약될 여지

가계소득¹⁾ 및 민간소비



주: 1) 임금 및 급여, 영업이익, 재산소득의 합계,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태도¹⁾



주: 1) 마이너스(-)는 대출태도 강화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 금년중 민간소비는 지난해(2.5%)보다 낮은 2.0% 증가할 전망

- 2018년에는 2.3% 정도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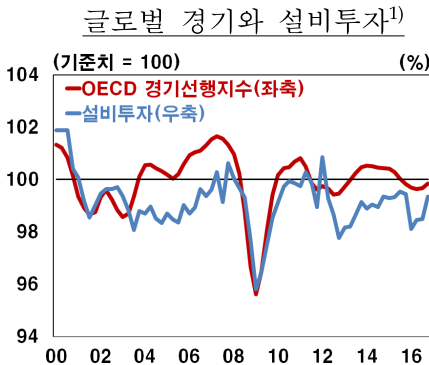
민간소비 전망

| 2016 | | 2017 ^{e)} | | 2018 ^{e)} |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연간 |
| 2.5 | 1.9 | 2.0 | 2.0 | 2.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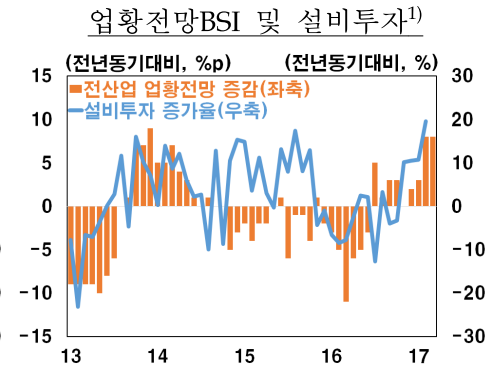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 설비투자

- 금년중 설비투자는 상당폭으로 증가할 전망
 -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으로 기업투자 유인이 확대
 - 또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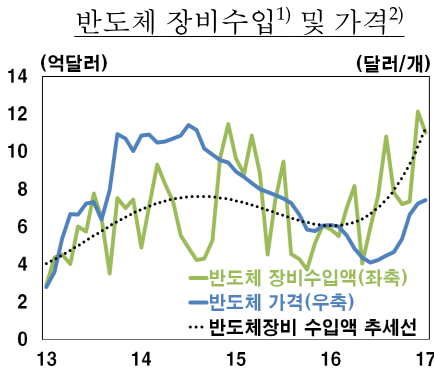


주: 1) 설비투자 순환변동치 기준
자료: OECD, 한국은행



주: 1) 설비투자지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IT부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
 - 반도체는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신규 증설에 더해 DRAM 가격 강세 등으로 유지·보수 투자도 확대
 - 디스플레이는 OLED 생산라인 확충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



주: 1) 추세선 4차 다항회귀 이용 추출
2) DDR3 DRAM 기준
자료: 관세청,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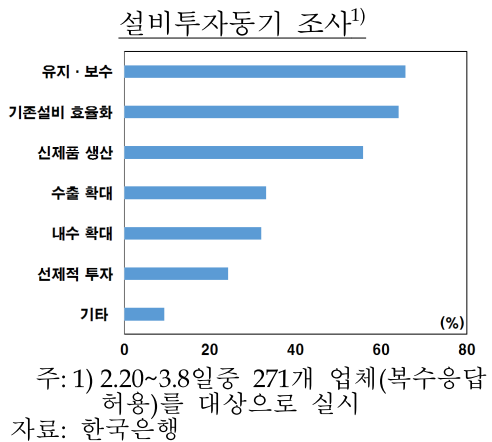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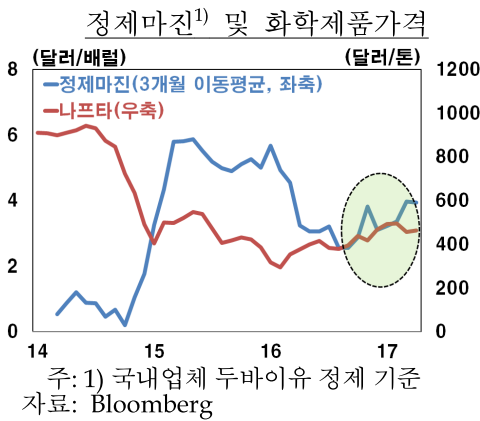
주요 IT장비업체 납품계약 현황¹⁾

| 업체명 | 계약상대방 | 금액 | 납품시기 |
|-------|---------|------|-------|
| 엘오티베컴 | 삼성전자 | 126억 | 4~7월중 |
| 에스티아이 | 삼성전자 | 183억 | 10월말 |
| 인텍플러스 | 삼성전자 | 18억 | 5월말 |
| 테스 | SK하이닉스 | 155억 | 3~4월중 |
| 한미반도체 | SK하이닉스 | 21억 | 6월말 |
| 비아트론 | LG디스플레이 | 90억 | 4~5월중 |
| DMS | LG디스플레이 | 281억 | 7월초 |
| SFA | 삼성디스플레이 | 568억 | 4월말 |

주: 1) 계약내용 비공개분 제외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비IT부문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보수적 투자행태를 견지

- 석유화학·정제는 수출여건 개선, 정제이윤 증대 등으로 증설 및 신규 투자유인이 확대
- 항공 등 운수는 수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중국 관광객 감소 등 긍정·부정 요인이 교차하며 전년대비 보합 수준 예상
- 조선은 기업구조조정 추진, 철강은 과잉 공급 조정 등으로 투자유인이 낮은 상황



⇒ 금년중 설비투자는 지난해 2.3% 감소에서 6.3% 증가로 전환 예상

- 2018년에는 3.4% 증가 전망

설비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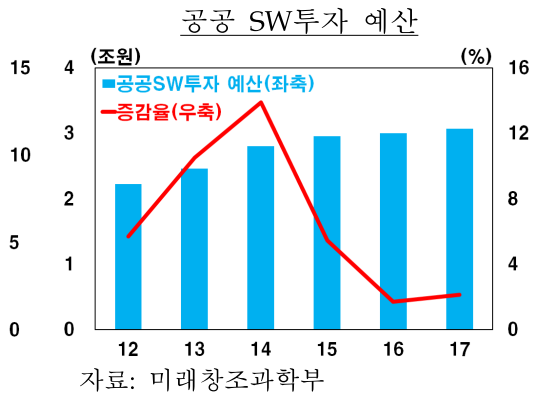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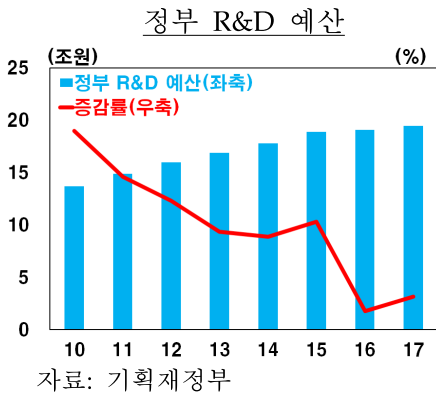
| 2016 | | 2017 ^{e)} | | 2018 ^{e)} |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연간 |
| -2.3 | 9.5 | 3.3 | 6.3 | 3.4 | |

(전년동기대비, %)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민간부문의 투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겠으나 정부 R&D예산 증가(2016년 19.1조원 → 2017년 19.5조원)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소폭 확대 예상
 - 신기술 확보 목적의 M&A 확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우려 등이 R&D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정부의 SW지원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SW중심대학 확대 운영(14개 → 20개), 인공지능·사물인터넷·차세대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SW투자 예산 증대 등

⇒ 금년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7% 증가 예상

- 2018년은 3.2%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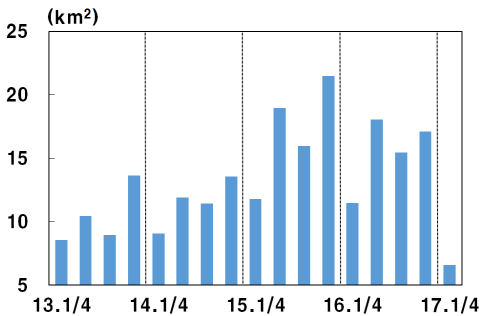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 | | (전년동기대비, %) | | |
|------|--------------------|-------------|--------------------|-----|
| 2016 | 2017 ^{e)} | | 2018 ^{e)}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2.3 | 2.5 | 2.9 | 2.7 | 3.2 |

(4)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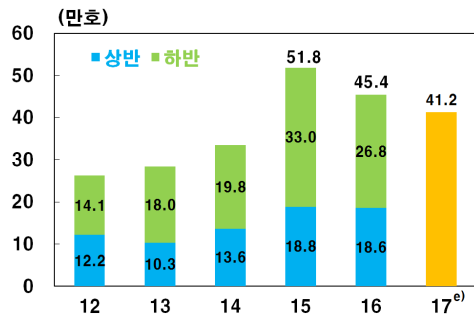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
- 주거용 건물은 2015~16년중 크게 늘어난 주택 착공면적이 금년 중 주거용 건물건설에 긍정적 영향
 - 금년 아파트 분양계획(약 40여만호 예상) 축소 가능성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 주택 매수심리 위축 등에 따른 매매거래 부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이 분양시장에 부정적 영향

주거용 건물 착공면적¹⁾



주: 1) 17.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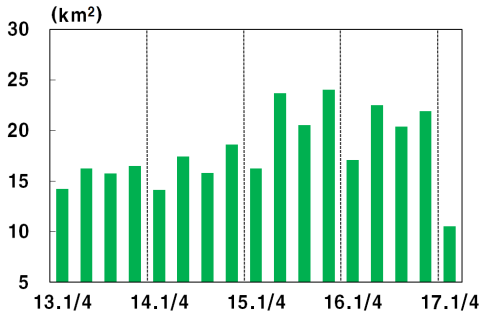
아파트 분양¹⁾



주: 1) 2017년은 계획 기준
자료: 부동산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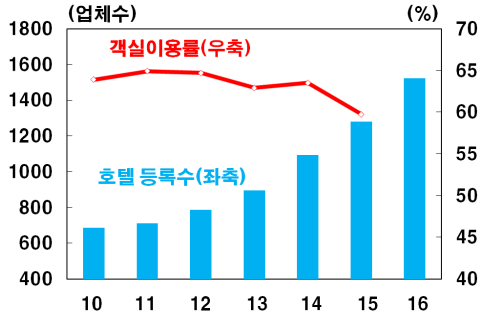
- 비주거용 건물도 오피스텔,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 예상
 - 다만 공실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숙박시설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추가 확대 여지는 제한적
 - * 오피스 13.0%, 중대형 상가 10.6%(2016년말 기준, 한국감정원)
 - 한편 공업용 건물건축의 경우 최근 설비투자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모습

비주거용 건물 착공면적¹⁾



주: 1) 17.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호텔 등록현황 및 객실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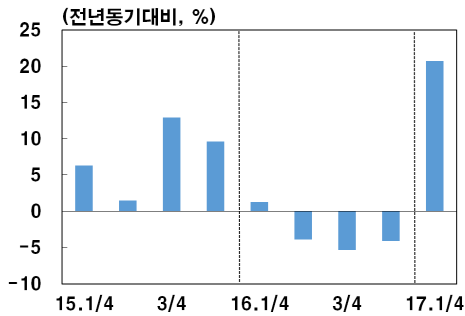


자료: 한국호텔업협회

□ 토목은 정부의 SOC 예산 규모 축소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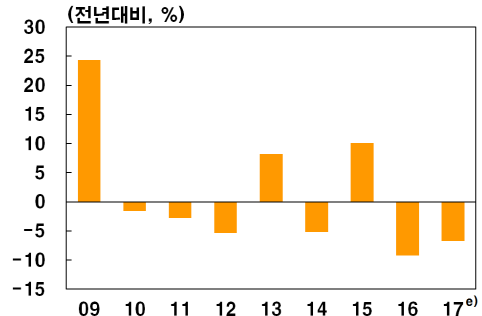
- 지난해에 비해 상반기 SOC 재정집행 집중이 완화됨에 따라 하반기중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

공업용 건물 착공면적¹⁾



주: 1) 17.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SOC 예산¹⁾



주: 1) 추경 포함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2017년중 건설투자 증가율은 4.5%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

- 2018년에는 0.1%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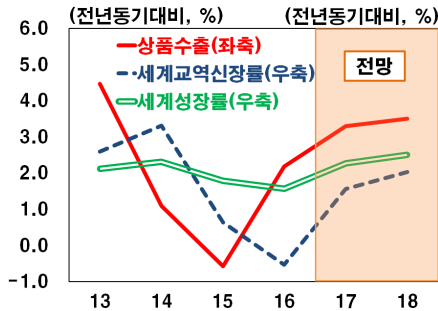
건설투자 전망

| | | (전년동기대비, %) | | |
|------|-----|--------------------|-----|--------------------|
| 2016 | | 2017 ^{e)} | | 2018 ^{e)}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10.7 | 7.3 | 2.2 | 4.5 | -0.1 |

(5) 상품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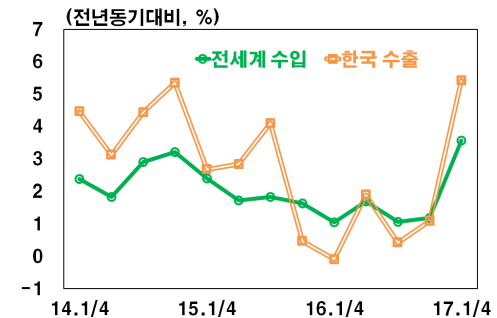
- 상품수출(실질GDP중 재화수출)은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
 - 세계교역 신장률은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도 회복되면서 확대될 전망
 - 다만 보호무역기조 확산,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등은 세계교역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직·간접 무역규제 강화 가능성은 대중수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상품수출¹⁾, 세계 교역신장률·성장률



주: 1) 실질GDP중 재화수출
자료: 한국은행,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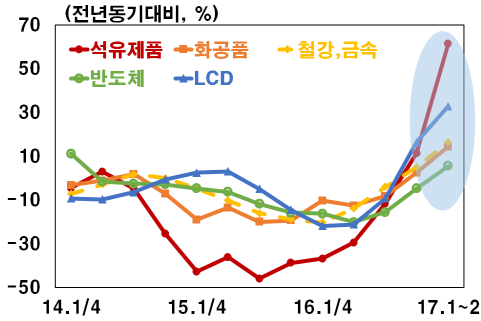
전세계 수입¹⁾ 및 우리나라 수출 물량²⁾



주: 1) 17.1/4분기는 1월 기준
2) 선박 제외
자료: 한국은행, C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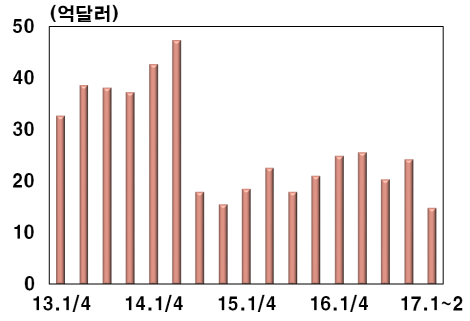
- 금액기준으로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통관수출) 세계수요 회복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품목의 단가상승도 수출 회복에 기여
 - 다만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단가의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화공품·석유제품·LCD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무통관수출) 금년중 중계순수출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은 없으나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 품목별 수출단가¹⁾



주: 1) 수출금액지수를 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출
자료: 한국은행

중계무역 순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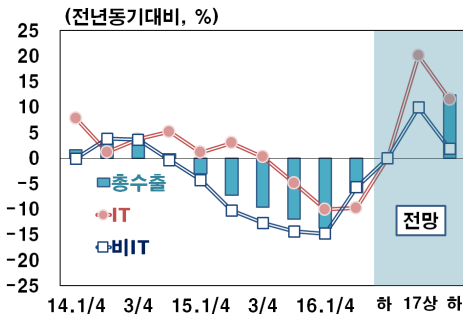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품목별로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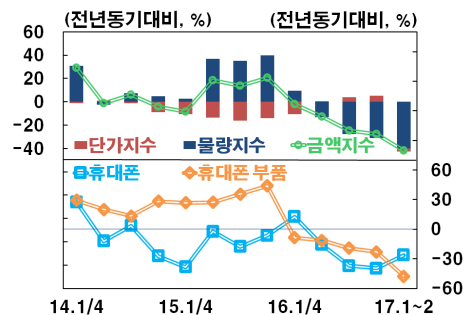
- (IT) 반도체는 물량 확대 및 단가 회복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겠으나 휴대폰은 후발업체와의 경쟁심화, 부품 현지조달 확대 등으로 완제품·부품 모두 부진을 지속할 전망
- (비IT) 석유제품·철강은 단가상승에 힘입어, 기계류는 신흥국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하겠으나 선박은 부진이 점차 심화될 전망

IT¹⁾ 및 비IT 수출



주: 1)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패널, 컴퓨터기군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휴대폰 수출



자료: 무역협회, 한국은행

⇒ 2017년중 상품수출은 3.3% 증가할 전망

- 2018년에는 점진적인 세계경기 회복으로 금년보다 소폭 높은 3.5% 증가 예상

상품수출¹⁾ 전망

(전년동기대비, %)

| 2016 | | 2017 ^{e)} | | 2018 ^{e)} |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연간 |
| 2.2 | 4.0 | 2.6 | 3.3 | | 3.5 |

주: 1) 실질GDP중 재화수출

(6) GDP 성장률

- 2017년중 GDP 성장률은 2.6%(상반 2.6% → 하반 2.7%)를 기록할 전망
- 2018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 | 2016 | | 2017 ^{e)} | | 2018 ^{e)} |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GDP | 2.8 | 2.6 | 2.7 | 2.6 | 2.9 |
| 민간소비 | 2.5 | 1.9 | 2.0 | 2.0 | 2.3 |
| 설비투자 | -2.3 | 9.5 | 3.3 | 6.3 | 3.4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3 | 2.5 | 2.9 | 2.7 | 3.2 |
| 건설투자 | 10.7 | 7.3 | 2.2 | 4.5 | -0.1 |
| 상품수출 | 2.2 | 4.0 | 2.6 | 3.3 | 3.5 |
| 상품수입 | 3.6 | 6.2 | 1.8 | 4.0 |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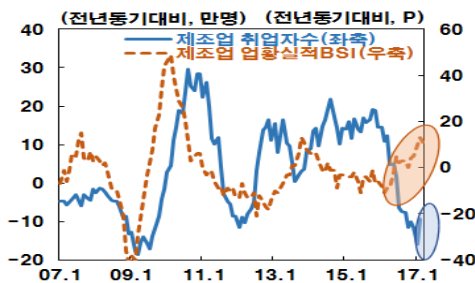
2. 고용

(1) 여 건

□ 수출 확대에 따른 제조업 고용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 미스매치, 기업구조조정, 중국의 한국관광 규제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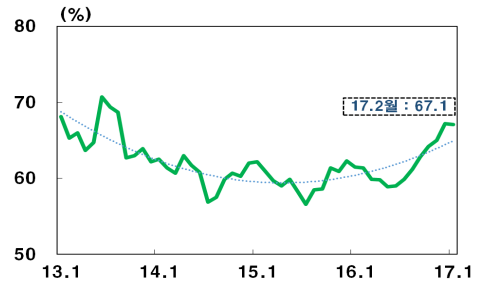
○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업황인식이 개선되고 구인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구인구직비율이 상승세

제조업 업황실적BSI 및 취업자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구인구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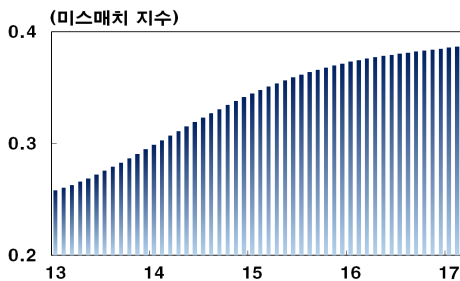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노동시장 수급의 높은 미스매치는 고용상황 개선에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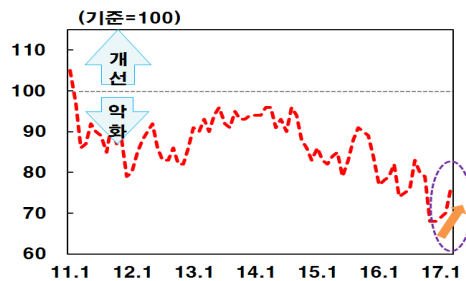
▪ 체감고용상황이 최근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열악

고용상황 미스매치¹⁾



주: 1) 구인자와 구직자간 격차를 계약형태(전일제, 시간제 등)별로 합산하여 산출, 동 지수가 높을수록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큼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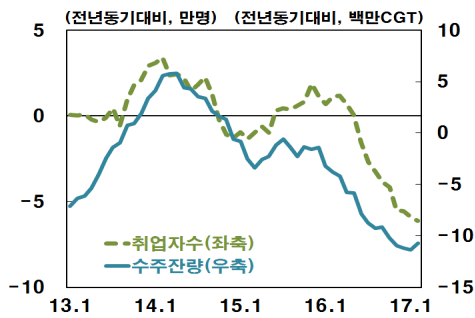
취업기회전망CSI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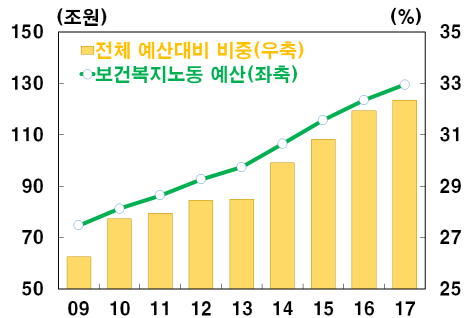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은 수출 확대로 부진이 완화되나 기업구조조정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서비스업은 중국의 한국관광 규제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음식숙박업 등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부정적 영향
 - 다만 공공행정·보건·사회복지 등은 정부 고용대책 등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

조선업 취업자수¹⁾ 및 수주잔량



주: 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Clarkson Research

보건복지노동 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 전 망

□ 금년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28만명 내외로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전망(상반 28만명 → 하반 29만명)

○ 실업률은 3.8%(상반 4.0% → 하반 3.5%), 고용률은 60.6% 수준

□ 2018년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30만명 예상

○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60.8% 내외로 전망

고용 전망

| | (만명, %) | | | | | | |
|-----------------------|---------|--------|--------|--------------------|--------|--------|--------------------|
| | 2016 | | | 2017 ^{e)} | | | 2018 ^{e)}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취업자수 증감 ¹⁾ | 29 | 31 | 30 | 28 | 29 | 28 | 30 |
| 실업률 | 4.0 | 3.4 | 3.7 | 4.0 | 3.5 | 3.8 | 3.7 |
| (S.A.) | 3.8 | 3.7 | - | 3.8 | 3.7 | - | - |
| 고용률 ²⁾ | 59.9 | 60.9 | 60.4 | 60.1 | 61.1 | 60.6 | 60.8 |
| | [65.6] | [66.5] | [66.1] | [66.2] | [67.0] | [66.6] | [66.9] |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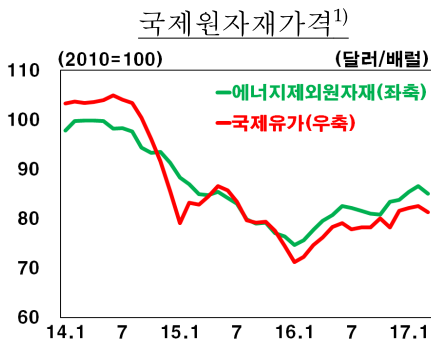
2) 15세 이상, []내는 15~64세(OECD기준)

3. 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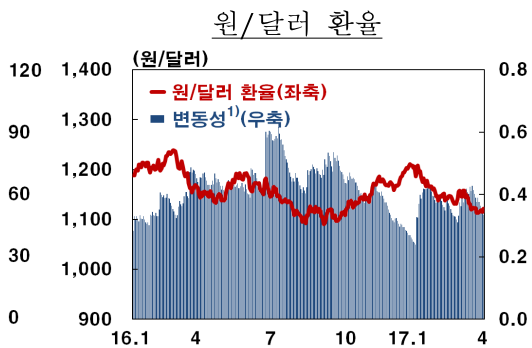
(1) 여 건

(공급요인)

- 국제유가는 당분간 현 수준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증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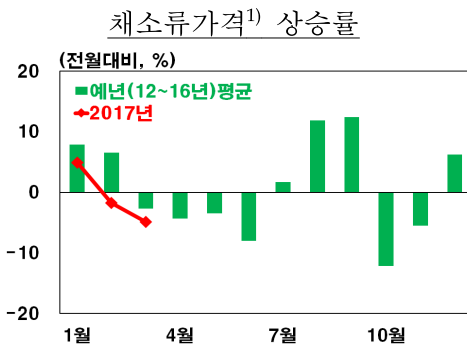


주: 1) World Bank 에너지제외 원자재 가격 지수 및 Dubai油 기준
자료: World Bank,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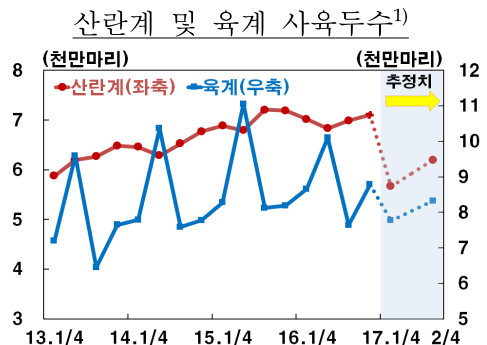


주: 1) GARCH(1,1) 모형으로 추정
자료: 한국은행

- 농산물가격은 봄철 출하량 증가로 인한 채소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과일가격 강세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축산물가격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안정될 전망



주: 1)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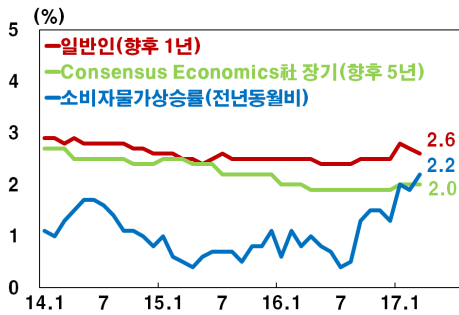


주: 1) 2/4분기의 경우 산란계는 5월, 육계는 4월에 대한 추정치
자료: 농업관측센터

(수요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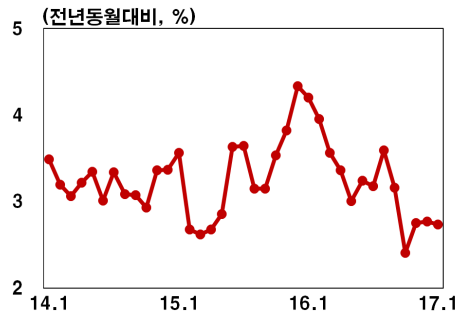
- GDP갭률은 마이너스가 지속될 전망
-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 향후 1년)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3월에는 2%대 중반 수준으로 복귀
 - 장기 기대인플레이션(향후 5년, Consensus Economics社 기준)은 지난해 4/4분기중 1.9%에서 금년 1/4분기중 2.0%로 소폭 상승
- 명목임금은 정액급여의 낮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Consensus Economics

정액급여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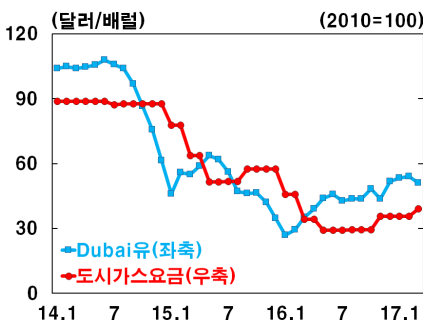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기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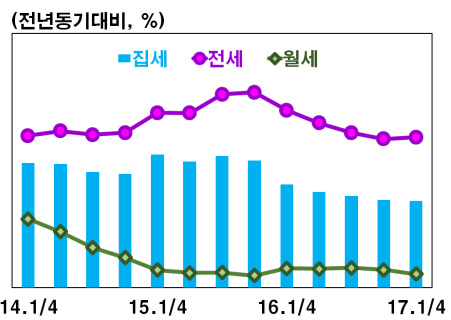
- 공공요금의 경우 지난해 여름철 전기료 한시인하 조치가 3/4 분기중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집세는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도시가스요금 및 국제유가



자료: 통계청, Bloomberg

집세¹⁾ 상승률



주: 1)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료: 통계청

(2) 전 망

□ 올해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할 전망

-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은 1.7% 예상
- 기간별로는 상반기 2.0%에서 하반기 1.8%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연말로 갈수록 유가 상승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는 데다,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농축수산물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

□ 2018년에는 소비자물가가 1.9% 상승할 전망

-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은 1.9% 예상

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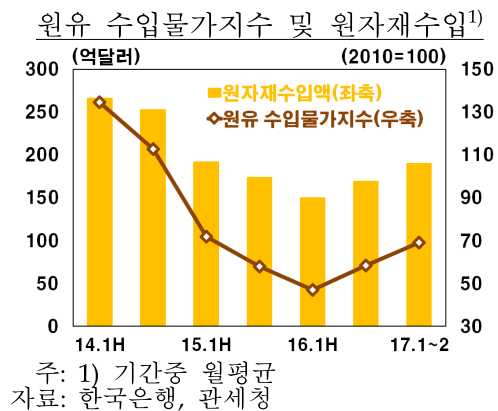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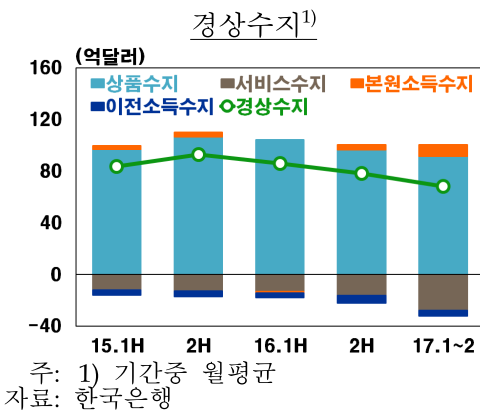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 | 2016 | | | 2017 ^{e)} | | | 2018 ^{e)} |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소비자물가 | 0.9 | 1.1 | 1.0 | 2.0 | 1.8 | 1.9 | 1.9 |
| 식료품·에너지 제외 | 1.9 | 1.8 | 1.9 | 1.6 | 1.7 | 1.7 | 1.9 |
| 농산물·석유류 제외 | 1.7 | 1.5 | 1.6 | 1.4 | 1.6 | 1.5 |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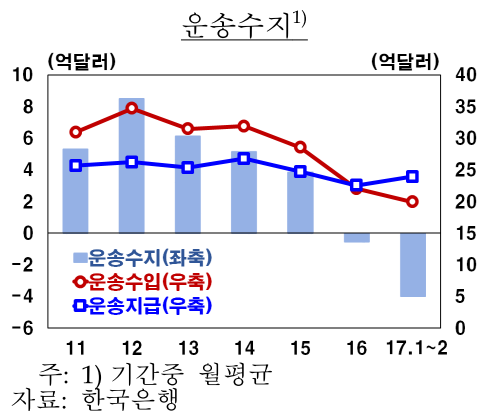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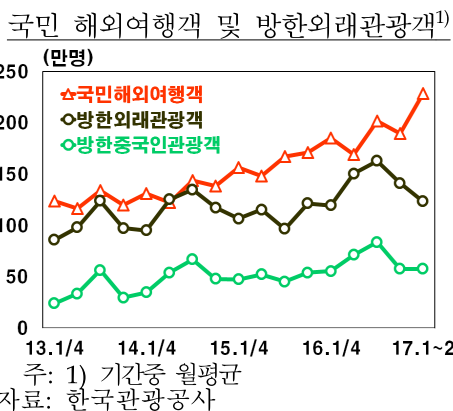
4. 경상수지

(1) 여 건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전년에 비해 흑자폭은 감소할 전망
- (상품수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수출입차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수지)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여행수지 부진이 심화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
- (본원소득수지) 이자소득을 중심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2) 전 망

□ 2017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987억 달러에서 75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상품수지 흑자 축소 등에 주로 기인

경상수지 전망¹⁾

(억달러)

| | 2016 | | | 2017 ^{o)} | | | 2018 ^{o)} |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경상수지 | 517 | 470 | 987 | 370 | 380 | 750 | 730 |
| 상품수지 | 625 | 580 | 1,204 | 560 | 510 | 1,070 | 1,010 |
| 수출(통관) | 2,412 | 2,542 | 4,954 | 2,710 | 2,650 | 5,360 | 5,520 |
| | (-10.2) | (-1.6) | (-5.9) | (12.3) | (4.2) | (8.2) | (3.0) |
| 수입(통관) | 1,931 | 2,131 | 4,062 | 2,310 | 2,280 | 4,590 | 4,780 |
| | (-13.1) | (-0.5) | (-6.9) | (19.6) | (7.0) | (13.0) | (4.1) |
| 서비스·본원·이전소득 | -108 | -110 | -218 | -190 | -130 | -320 | -280 |
| 서비스수지 | -78 | -98 | -176 | -160 | -140 | -300 | -270 |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8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730억달러 수준 전망

○ 상품수지 흑자폭은 감소하겠으나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줄면서 그 영향이 일부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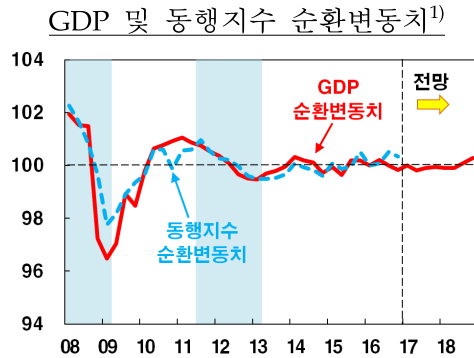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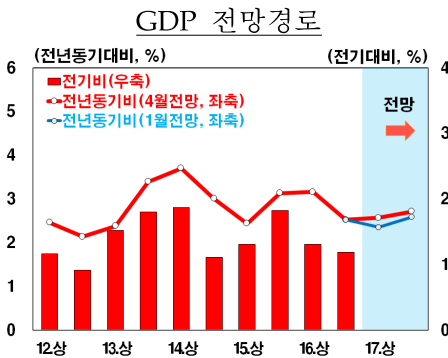
5. 종합평가

(1) 경제성장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금년중 2.6% 수준을 나타낼 전망

| | | | | | | |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e)} | 2018 ^{e)} |
| ▶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 2.9 | 3.3 | 2.8 | 2.8 | 2.6 | 2.9 |

- 금년중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2018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주: 1) 음영은 경기하강기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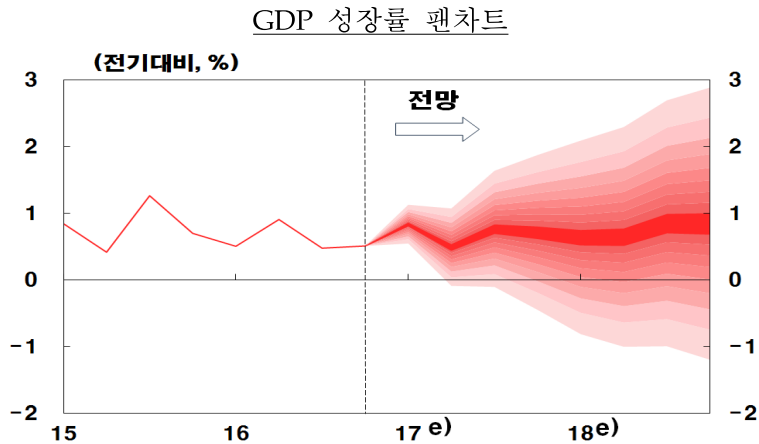
□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기여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내수 기여도는 소폭 낮아질 전망

| | | | | |
|---------|------|------|------|--------------------|
| (%, %p) | 2014 | 2015 | 2016 | 2017 ^{e)} |
| ▶ GDP | 3.3 | 2.8 | 2.8 | 2.6 |
| 수출 | 1.4 | 0.0 | 0.6 | 0.6 |
| 내수 | 1.9 | 2.8 | 2.2 | 2.0 |

주: 1) I/O표의 수입유발효과를 부문별로 차감

□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

- (상방리스크 요인) 글로벌경기 및 IT업황 개선세 강화에 따른 대외수요 회복세 확대, 사드관련 갈등 완화 등에 따른 중국 무역제한조치의 영향 축소, 신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등
- (하방리스크 요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사드관련 갈등 심화 등에 따른 중국 무역제한조치의 영향 확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2) 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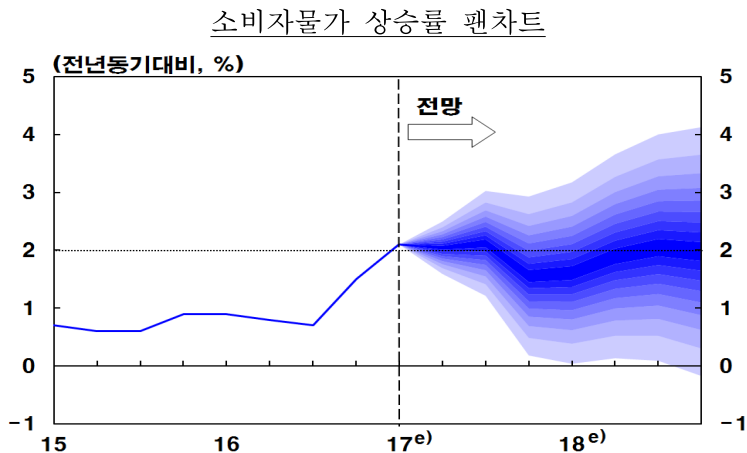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보일 전망

- 1/4분기중 농축수산물가격 및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하여,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월 전망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1.8%→1.9%)

□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올해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 2018년중 근원인플레이션은 국내경기의 점진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2017년 1.7% → 2018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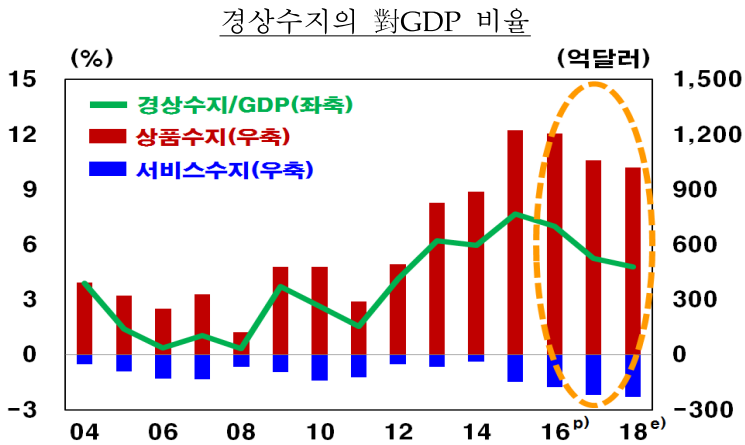
□ 물가전망 경로상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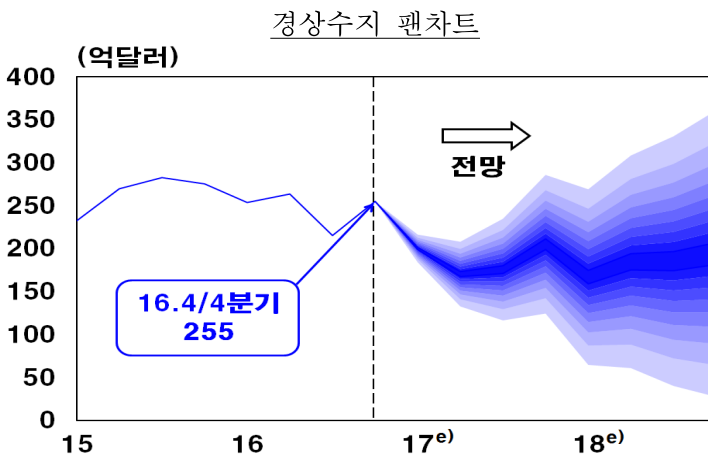
(3) 경상수지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6년 7% 내외에서 2017년 5%대 중반, 2018년 5% 내외로 하락하면서 점차 장기균형 수준*(3~4%)에 근접할 전망

* 2010~14년(유가하락 이전)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 평균: 4.1%



- 전망경로에 있어서는 글로벌교역 신장세 확대에 따른 수출 증대 등 상방리스크와 사드관련 서비스·상품수지 악화 및 보호무역 기조 격화 등 하방리스크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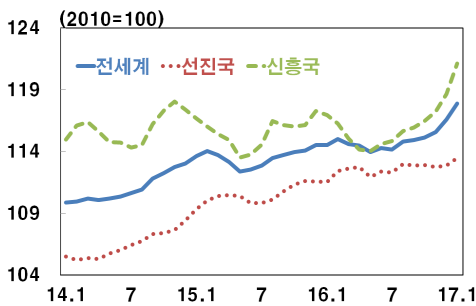
IV. 주요 현안점검

1. 최근 세계교역 여건 평가 및 전망

(1) 검토배경

- 2012년 이후 장기간 부진을 지속하던 세계교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
 - 세계경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선흐름을 보이는 국가로부터의 교역경로를 통한 경기확산효과(spillover effect), 즉 세계교역의 개선이 긴요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중심 경제정책 대두 등으로 세계교역의 회복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
- ⇒ 세계교역의 여건을 개선 및 제약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교역의 향방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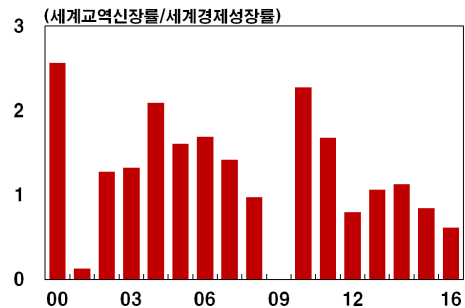
권역별 세계 교역량¹⁾²⁾



주: 1) 선진국 및 신흥국은 수입량 기준
2) 3개월 이동평균

자료: CPB

세계교역탄성치¹⁾



주: 1)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09년 제외

자료: IMF WEO(2016.10월 및 2017.1월호)

(2) 개선요인

□ (선진국의 경기회복)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GDP성장률)가 높은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경기개선에 따른 교역증가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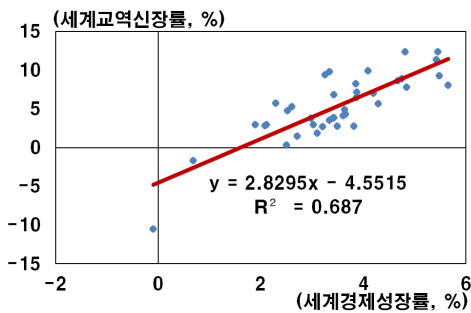
-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보이는 세계교역의 소득대비 탄성치*는 선진국이 신흥국의 2배 수준

| * 교역탄성치 ¹⁾ | 전세계 | 선진국 | 신흥국 |
|-----------------------|------|------|------|
| - 금융위기 이전 | 1.43 | 2.10 | 1.65 |
| - 금융위기 이후 | 0.92 | 1.70 | 0.72 |

주: 1) 금융위기 이전은 2001~08년을, 이후는 탄성치가 크게 둔화된 2012~16년을 기준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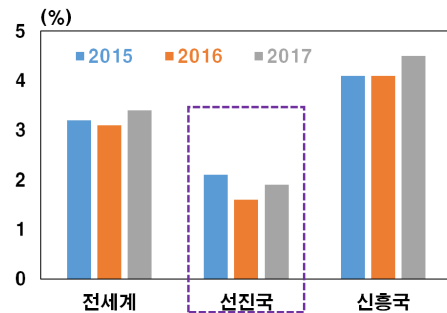
- IMF는 2016년중 선진국의 성장률이 전년대비 크게 둔화되었으나 2017년에는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교역신장률과 경제성장률간 관계¹⁾



주: 1) 1980~2018년 기준
자료: IMF WEO(2016.10 및 2017.1)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EO(2017.1)

□ (투자 개선) 수입유발효과*(import intensity)가 큰 글로벌 투자**도 유가 안정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 * 수입유발계수 ¹⁾ | 민간소비 | 정부지출 | 고정투자 |
|------------------------|-------|-------|-------|
| - 미 국 | 0.110 | 0.062 | 0.197 |
| - 유 로 | 0.123 | 0.055 | 0.163 |
| - 중 국 | 0.081 | 0.080 | 0.128 |

주: 1) OECD, 2000년대 중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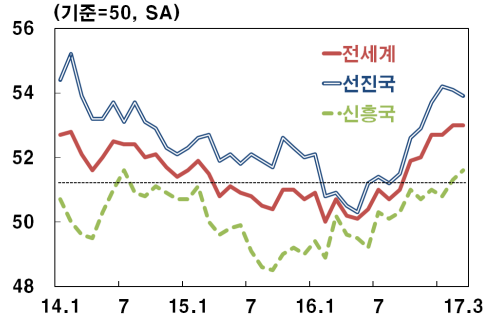
** IMF(WEO 2016.10월)는 금융위기 이전(2003~07년)대비 금융위기 이후(2012~15년) 세계교역신장률 둔화폭 6.6%p 중 2.0%p가 글로벌 투자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주요국 투자 증가율

| | 2016 (%) | | | | | |
|------------------|----------|---------|------|------|------|-----|
| | 2015 연간 | 2016 연간 | 1/4 | 2/4 | 3/4 | 4/4 |
| 미국 ¹⁾ | 4.0 | 0.7 | -0.9 | -1.1 | 0.1 | 2.9 |
| 유로 ²⁾ | 3.2 | 2.6 | 0.3 | 1.2 | -0.7 | 0.6 |
| 일본 ²⁾ | 0.0 | 1.0 | -0.2 | 1.6 | 0.1 | 0.8 |
| 중국 ³⁾ | 10.0 | 8.1 | 10.7 | 9.0 | 8.2 | 8.1 |

주: 1) 전기대비 연율, 2) 전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누계 기준
자료: BEA, Eurostat, 일본 내각부,
중국 국가통계국

글로벌 제조업 PMI



자료: Bloomberg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가 증가로 전환

| * 수입 증가율 ¹⁾ (%) | 2015 | 16.1/4 | 2/4 | 3/4 | 4/4 |
|----------------------------|-------|--------|-------|-------|------|
| - 러시아 | -37.4 | -14.5 | -4.3 | 5.5 | 8.5 |
| - 브라질 ²⁾ | -25.2 | -33.4 | -21.4 | -13.2 | -7.6 |
| - 인도네시아 | -19.9 | -13.0 | -8.5 | -4.2 | 6.3 |
| - 말레이시아 | -15.7 | -14.2 | -6.4 | -0.2 | 4.0 |

주: 1) 전년동기대비 2) FOB 기준

자료: IMF

(3) 제약요인

□ (보호무역기조 심화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중심 통상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기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

*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major review)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2017.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조치가 늘어나는 추세

보호무역조치 건수¹⁾

| | 2007~11년 평균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년 상반기 |
|----------------------|-------------|-------|-------|-------|-------|-----------|
| 비관세장벽 ²⁾ | 2,238 | 2,525 | 2,654 | 2,669 | 2,885 | 1,547 |
| 무역구제조치 ³⁾ | 356 | 384 | 510 | 479 | 488 | 266 |

주: 1) 조사개시 및 시행 기준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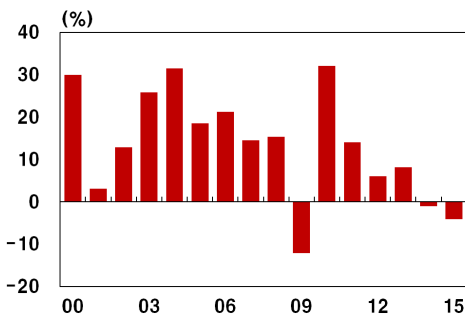
2) 기술장벽, 위생검역
자료: WTO

□ (글로벌 생산분업 약화) 신흥국과 선진국간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생산분업(Global Value Chain)의 교역확대 효과가 약화* 추세

* 신흥국들은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 후 이를 단순 가공·조립하여 수출하는 산업에서 벗어나 자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모습

○ 미국의 자국기업 본국회귀 유도(reshoring) 정책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생산분업의 약화가 가속화될 우려

주요 신흥국¹⁾의 부품 및 부분품 수입



주: 1)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
자료: UN Comtrade

미국의 본국회귀 유도정책 논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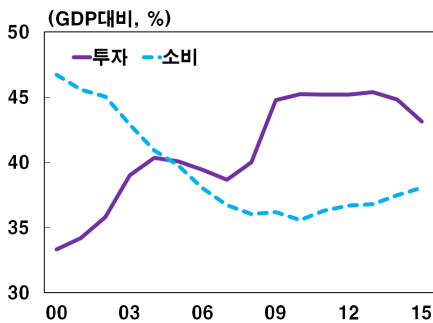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국경조정세 | 미국 기업의 수출은 과세대상에서 수입에 대한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각각 제외 |
| 법인세 인하 |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 (35%→15%) |
| 해외수익 감세 | 해외 조세회피처의 보유자본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해외수익에 대한 송금세를 인하 (35%→10%, 1회에 한함) |

자료: 언론 등

□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 지속) 중국이 「투자·수출·제조업」에서 「소비·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구조 전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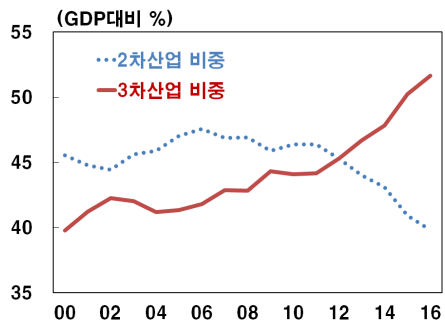
▪ 중국정부는 소비의 안정성장 촉진 등 “내수잠재력 발굴”을 2017년 8대 중점업무중 하나로 제시하여 내수의 성장기여도 확대를 유도 (전국인민대표대회, 3.5일)

중국의 투자 및 소비 비중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의 2차 및 3차 산업 비중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4) 종합평가

- 세계교역은 교역탄성치가 높은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 추세를 지속할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산업정책은 미 경제계의 우려*, 자유무역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울 가능성
 - * 3월중 CNBC의 시장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변
 -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안이 명확해지기까지는 불확실성 확대 경로를 통해 교역회복을 제약할 전망
 - * World Bank는 통상정책의 구체화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세계교역을 제약하는 주요인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17.2월)
- 그러나 글로벌 생산분업 약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본격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2. 사드 관련 한·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

(1) 중국 대응조치 현황

-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직·간접적 대응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2016.7월) 이후 단체여행 규제, 소비재 등의 통관절차 강화, 한류 제한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
 - 사드부지 확정(2017.2월) 이후에는 여행을 통한 한국여행 금지, 롯데마트 영업제한 등 보다 파급력이 큰 조치를 단행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

| 분야 | 주요 사례 |
|-------|--|
| 여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비자 발급조건 강화(16.8월), 저가 관광상품 규제(16.10월) ·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크루즈선 한국행 운항노선 축소(17.1월) · 중국여행사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17.3월) |
|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콘텐츠 심의 강화 등(16.9월), · 한류스타 광고·방송출연 금지(16.11월) · 중국내 한국산 게임에 대한 사전 인증 강화(17.3월) |
| 상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16.11월), ·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16.12월) · 일부 한국산 식료품·화장품 수입 불허(17.1월) |
| 현지 영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롯데월드타운 조성 공사 공정상 문제로 임시 중단(16.12월) · 중국내 롯데마트 소방시설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17.3월) |

⇒ 중국과 대만·일본간 분쟁사태 및 업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2) 대만 및 일본 사례

(대만 사례)

□ [경위] 중국은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2016.1월) 이후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대응조치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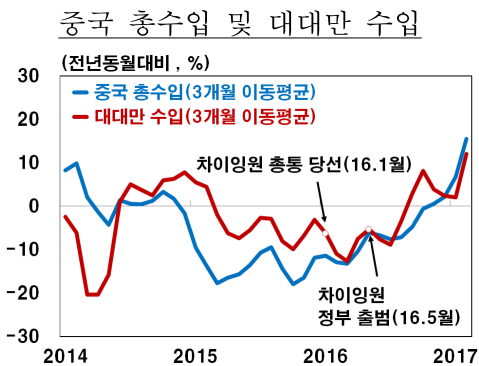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 등 대만과 수교중인 국가를 상대로 외교관계 단절을 유도

○ 중국 정부는 단체관광객 정원 축소(8천명 → 5천명) 등 중국인의 대만 여행을 제한하고 식료품 수입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

□ [영향] 차이잉원 정부 출범(2016.5월) 전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대중수출의 영향은 제한적

○ 상품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중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로 돌아서며 회복세

○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월 이후 금년 2월까지 약 32% 감소



자료: CEIC

기간별 수입
(전년동기대비, %)

| | 중국 총수입 | 對대만 수입 |
|-------|--------|--------|
| 2015년 | -14.4 | -4.8 |
| 상반 | -15.7 | -3.9 |
| 하반 | -13.1 | -5.6 |
| 2016년 | -5.4 | -3.4 |
| 상반 | -9.9 | -10.0 |
| 하반 | -1.3 | 2.6 |

자료: 중국 해관총서

(일본 사례)

□ [경위] 일본의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방침 천명(2012.7월) 이후 중·일간 갈등이 격화

- 중국 정부는 일본 수입품 통관감시 강화, 관광상품 판매 제한 등 보복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민간에서도 광범위한 일본상품 불매운동, 대규모 반일시위 등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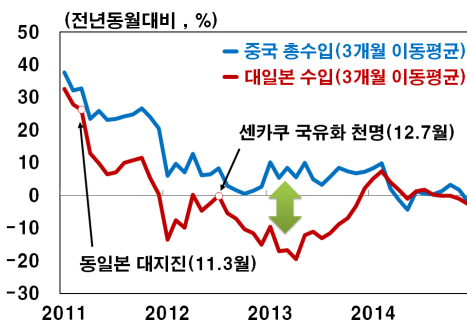
□ [영향]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약 1년여간 일본의 대중수출 및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 감소

- 상품수출의 경우 소비재 타격이 컸으며 부품 등 일부 중간재 수출도 상당폭 위축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포함), 전자기기, 기계류, 철강 등이 크게 감소

* 일본 자동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약 7개월간 하락한 후 회복 (점유율: 2011년 16.2% → 2012년 4.6% → 2013년 14.9%)

-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으로 줄면서 연간(2012.9~13.8월) 약 25% 감소

중국 총수입 및 대일본 수입



자료: CEIC

일본의 품목별 대중 수출

| | (전년동기대비, %) | |
|---------|-------------|-------------|
| | 12.8~13.10 | 13.11~14.10 |
| 대중총수출 | -11.9 | 2.1 |
| 자동차(부품) | -23.8 | 22.3 |
| 전기전자 | -11.5 | -1.1 |
| 기계류 | -22.0 | 5.0 |
| 철강금속 | -13.0 | -1.7 |
| 화학품 | 0.4 | -2.7 |

자료: 중국 해관총서

(3)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드 관련 중국의 무역규제 조치가 우리 대중 상품수출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부진을 지속하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말 증가로 전환된 이후 금년 1/4분기까지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흐름
 - 다만 3월 들어서는 대중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총수출 증가율을 소폭 하회
 - 반면 대중 엔터테인먼트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3월중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중국내 일부 한국 현지법인의 판매가 감소하는 등 일부 서비스부문과 소비재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조짐

우리나라 대중수출

| | (전년동기대비, %) | | | | | | | |
|------------|-------------|-------|--------------------|------|--------|-------|-------|---------------------|
| | 16.1/4 | 2/4 | 3/4 | 4/4 | 17.1/4 | 1월 | 2월 | 3월 ¹⁾ |
| 총수출(통관) | -13.6 | -6.7 | -5.0 | 1.8 | 14.9 | 11.1 | 20.2 | 13.7 |
| 대중수출(통관) | -15.7 | -12.7 | -8.0 | -0.9 | 17.6 | 13.5 | 28.8 | 12.1 |
| 중국인 관광객수 | 17.1 | 36.3 | 85.1 ¹⁾ | 6.8 | -9.2 | 8.3 | 8.1 | -39.4 ²⁾ |
| 음향영상 서비스수출 | 41.1 | 72.0 | 46.4 | 10.2 | -13.0 | -12.4 | -13.5 | .. |

주: 1) 2015년 메르스사태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 증가
 자료: 관세청, 한국관광공사, ECOS

-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적 대응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중국인 관광객 및 대중수출 감소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업계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대응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하면 금년중 GDP가 0.2%p 하락하고 고용은 2.5만명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
 - 금년중 중국인관광객 30%, 대중 상품수출 2%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향후 중국 대응조치의 강도 및 지속기간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

(4) 종합 평가

- 과거 중국의 대만·일본간 분쟁 사례, 우리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 및 업계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적 대응이 강화될 경우 향후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관광, 무역 등의 의존도가 높아 양국간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거나 반한 감정이 격화될 경우 서비스업 외에 일부 상품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과급될 가능성

국가별 대중국 의존도

| | 수출 | (비중) | | | 중국관광객 현지법인매출 (%) | |
|-----------|------|------|------|-----|------------------|--------------------|
| | | 중간재 | 자본재 | 소비재 | 중국관광객 | 현지법인매출 |
| 한국 (2015) | 26.0 | 73.4 | 21.7 | 4.4 | 45.4 | 31.6 |
| 일본 (2011) | 19.7 | 66.0 | 24.2 | 7.0 | 16.8 | 19.0 ¹⁾ |
| 대만 (2015) | 25.7 | 84.1 | 13.4 | 2.3 | 40.1 | - |

주: 1) 2010년 기준
 자료: UN Comtrade, CEIC

-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긴밀한 국제분업체계(Global Value Chain)를 유지하고 있고 대중 수출의 소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요인
- 중국의 경제대응은 우선 자국 경제에 미칠 손실이 제한적인 여행 등 서비스업과 개인소비재 등에 집중될 가능성
- 과거 대만과 일본 사례의 경우에도 중국과의 수직적 무역관계 등으로 중간재에 대한 충격은 최종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파악

3. 최근 IT부문 투자 확대 배경 및 향후 전망

(1) 투자 확대 배경

□ 지난해 하반기 이후 IT부문 투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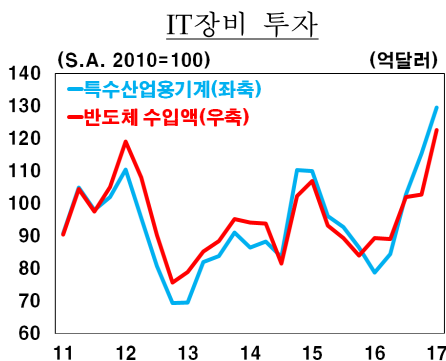
○ 특히 2016.4/4분기 이후 낸드플래시 및 OLED 관련 투자가 집중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큰 폭 확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특수산업용기계 투자*는 2016.3/4분기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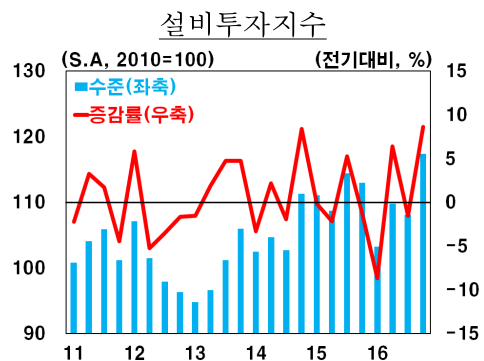
* 반도체제조용기계, 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건설 및 광산용기계, 공작기계, 산업용로봇 등으로 구성(통계청 설비투자지수 구성 기준)

| | 15.3/4 | 4/4 | 16.1/4 | 2/4 | 3/4 | 4/4 | 17.1/4 |
|-----------------------------------|--------|------|--------|------|------|------|--------------------|
| ▶ 설비투자 ¹⁾ (전기대비, %) | 5.2 | -1.9 | -6.5 | 5.1 | -1.9 | 8.0 | 3.0 ²⁾ |
| ▶ 특수산업용기계 ¹⁾ (전기대비, %) | -3.5 | -6.8 | -8.8 | 7.1 | 21.8 | 12.2 | 12.4 ²⁾ |
| ▶ 반도체장비 수입액(억달러) | 18.3 | 15.0 | 18.4 | 18.2 | 26.3 | 26.7 | 39.1 |

주: 1) 설비투자지수 기준 2) 2017.1~2월 기준
자료: 통계청, 관세청



자료: 통계청, 관세청



자료: 통계청

□ IT부문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TV 등 전방산업의 수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압력도 크게 증대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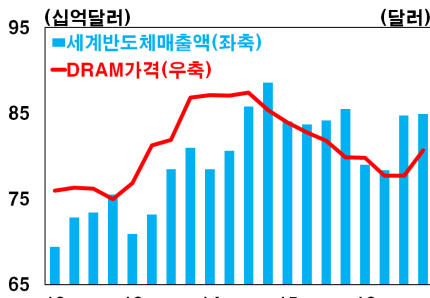
- 반도체는 관련디바이스 高사양화,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수요 등으로 전년 하반기 이후 공급부족 지속

| <메모리 탑재용량, GB> | PC | TV | 스마트폰 | SSD | 서버 |
|----------------|-----|------|------|-------|-------|
| ▶ 2013년 | 4.3 | 9.9 | 20.4 | 193.9 | 134.3 |
| ▶ 2016년 | 4.8 | 14.5 | 66.9 | 342.6 | 511.8 |

자료: G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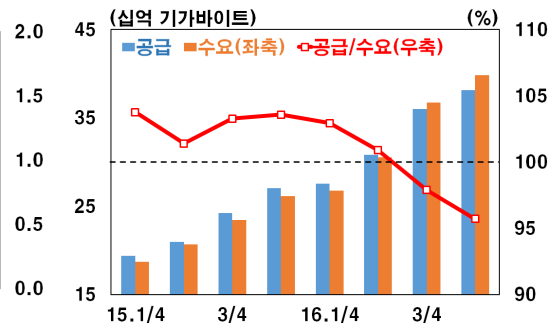
- 특히 낸드플래시는 글로벌 생산업체들의 공정 전환(2D → 3D)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부족이 심화

글로벌 반도체 업황



자료: Statista, Bloomberg

글로벌 낸드플래시 메모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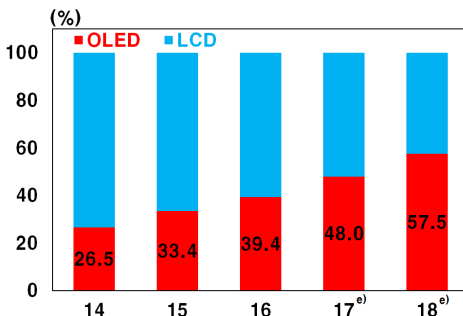
자료: Gartner

-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대형TV 선호*, 모바일용 OLED 수요 급증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확대

* 평균 TV평판 크기(연간 글로벌 판매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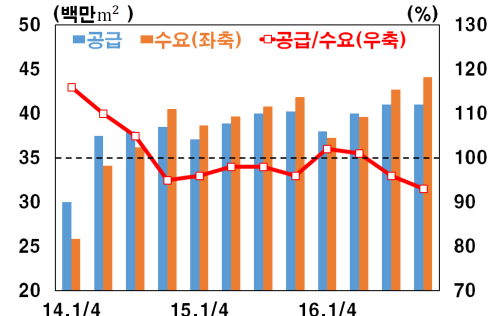
13년 38.7" → 14년 39.0" → 15년 39.2" → 16년 41.1"

스마트폰 패널시장 점유율



자료: IHS

글로벌 디스플레이 수급



자료: JP Morgan

(2) 향후 전망

□ 글로벌 IT업황은 금융위기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 수요우위 기조가 지속되면서 본격적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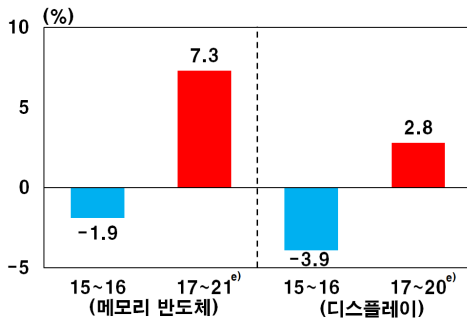
○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7%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특히 특히 국내업체들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낸드플래시와 OLED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

| (시장규모 증감률 전망치,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17~20 |
|-------------------|------|------|------|------|------|-------|
| ▶ 플래시메모리 | 5.4 | 6.3 | 10.4 | 6.8 | 6.3 | 7.5 |
| ▶ OLED | 14.8 | 17.7 | 30.1 | 22.2 | 17.8 | 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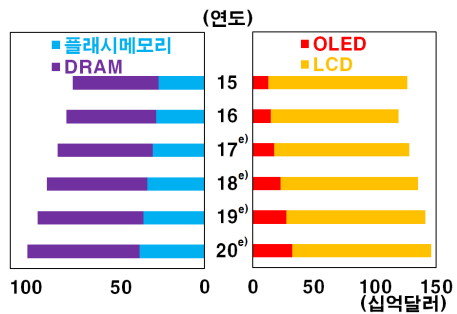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IHS

글로벌 IT업황¹⁾ 전망



주: 1) 매출액 기준
자료: IC insights, IHS

품목별 업황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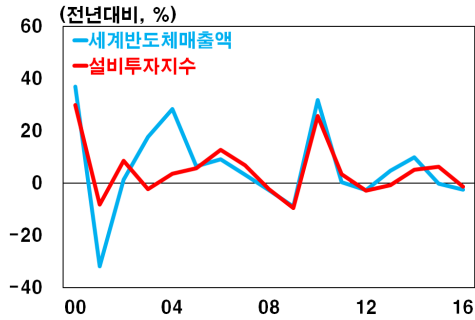
주: 1) 매출액 기준
자료: Statista, IHS

⇒ 글로벌 업황 개선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국내 IT부문 투자가 금년중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IT업황과 국내 일반기계류투자와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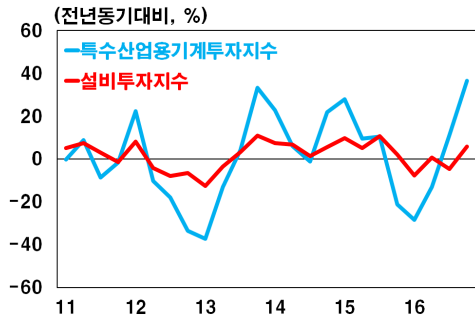
* 1995~2016년중 세계반도체매출액 및 설비투자지수 간 상관계수: 0.85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및 국내 설비투자



자료: Statista, 통계청

특수산업용기계투자 및 설비투자



자료: 통계청

- 한편 2018년 이후에도 주요 업체들은 3D 낸드플래시, OLED 등 신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속할 전망

주요 설비투자¹⁾ 내역

| | 업 체 명 | 위 치 | 투자완료 | 예상시점 |
|----------|-------|-------------------|------|-----------|
| 3D 낸드플래시 | 삼 성 | 평 택 | | 2017년 상반기 |
| | S K | 청 주 | | 2019년 상반기 |
| | | 이 천 | | 2017년 하반기 |
| OLED | 삼 성 | 탕 정 | | 2018년 하반기 |
| | | 탕 정 ²⁾ | | 2017년 하반기 |
| | L G | 과 주 | | 2018년 상반기 |

주: 1) 건물 등 구축물 투자 포함
 자료: 각社 IR자료, 언론보도 등 종합

2) LCD라인 전환

부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부 문 | 부 서 | 담 당 자 |
|--|-----|--|
| 작성총괄 | 조사국 | 김 응 최창호 |
| I.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 | |
| 1. 해외경제 (1) 주요국경제 (2) 글로벌 상품시장 (3) 국제금융시장 2. 국내경제 (1) 내수 (2) 수출입 (3) 고용 (4) 주택가격 (5) 물가 | 조사국 | 이재호 김지은 오세윤 권효성 김태경 이지은 백재민 정성엽 장은중 김민수 전기영 |
| II.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 | | |
| 1. 국외 여건 (1) 세계경제 (2) 글로벌 상품시장 2. 국내 여건 (3) 재정지출 (4) 주택가격 3. 요약 | 조사국 | 이재호 이현진 최기산 이재원 박동준 김지은 이흥후 박범기 장은중 이지영 최창호 함 건 |
| III. 거시경제 전망 | | |
| 1. 경제성장 (1) 민간소비 (2) 설비투자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 건설투자 (5) 상품수출 (6) GDP성장률 2. 고용 3. 물가 4. 경상수지 5. 종합평가 (1) 경제성장 (2) 물가 (3) 경상수지 | 조사국 | 권효성 방수연 김태경 진찬일 안근원 이지은 박진혁 백재민 김준호 유진혁 박성하 이종호 정성엽 이영호 정나리 김민수 전기영 김상우 부유신 김미주 이현창 김보경 최창호 이종호 김민수 전기영 김상우 부유신 김미주 이현창 김보경 |
| IV. 주요 현안점검 | | |
| 1. 최근 세계교역 여건 평가 및 전망 2. 사드관련 한·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 3. 최근 IT부문 투자 확대 배경 및 향후 전망 | 조사국 | 이재호 김지은 박종현 김상훈 박동준 전광명 김태경 안근원 |

경제전망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편집인 장 민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17년 4월 13일

제 작 (주)제일프린테크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SSN 2288-7083

